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일 가능” 영 김 의원의 신앙과 도전

미주 기독일보가 오프라인 발행 1천호를 넘어 새 이정표를 세웠다. 이민교회와 함께 걸어온 23년, 미주 기독일보는 이민의 삶 한복판에서 믿음으로 길을 열어 온 우리 주변의 신앙인들의 이야기를 싣고 있다. 이번 호에는 12살에 미국에 건너와 연방하원의원이 된 영 김 의원의 신앙과 도전의 여정을 담았다.

꿈 해변의 캔과 병, 어머니의 기도가 남긴 신앙의 기초

영 김 의원의 출발점은 한국이었다. 1962년 인천에서 태어난 그는 서울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그의 삶은 1975년 가족이 미국령 괌으로 이민을 떠나면서 크게 바뀌었다. 어린 영 김 의원은 부모보다 6개월 먼저 미국에 왔다. 당시 언니가 미군으로 괌에 있었기 때문에 먼저 새로운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다.

영 김 의원은 “처음 왔을 때는 굉장히 신나기도 했지만 동시에 매우 큰 도전이었다”며 “그때는 말도 제대로 못하던 때였고, 겨우 ‘헬로’ 하는 것도 무섭게 느껴졌다”고 말했다. 이어 “가족이 더 큰 희망을 안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 위해 온 길이었기 때문에, 힘들면서도 희망이 있었다”며 “가족을 도우면서 제 자리를 찾아가야 했던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그 시간을 지탱한 것은 어머니의 기도와 믿음이었다. 영 김 의원은 자신의 어머니를 누구보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기억했다. 부모는 미국에 온 이민자들이 그러했듯 힘든 노동은 마다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의 빌딩을 청소했고, 조금씩 모아 가족의 삶을 세웠다.

영 김 의원은 “주말마다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해변에 가서 쓰레기봉투를 주시면서 캔과 병, 강통을 모으라고 하셨다”며 “그때는 해변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일을 도와달라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그걸 재활용하신 것이었다. 많은 이민자가



영 김 캘리포니아 40지구 연방 하원의원 ©기독일보

12살 이민자 소녀에서 연방하원의원까지 어머니의 기도와 믿음으로 걸어온 공직의 길 한미동맹·북한 인권·지역 민생을 말하다

정이 그랬듯 저희 부모님도 정말 치열하게 삶을 일구셨다”고 말했다.

훗날 영 김 의원은 그 기억 안에 담긴 어머니의 믿음과 헌신을 새롭게 보게 됐다. 해변에서 모은 캔과 병은 관 한민교회를 세우는 작은 밑거름이 된 것이다. 영 김 의원은 “그 재활용한 돈이 50여 년 전 괌에 한인 장로교회를 세우는 데 보증금을 낼 수 있을 정도가 됐다”며 “그 작은 헌신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보태졌다는 사실은 제 삶의 중요한 신앙적 기억으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어릴 적 어머니에게서 배운 신앙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었다. 어머니가 보여 준 믿음과 성실함,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마음은 훗날 그가 어머니로서, 할머니로서, 또 연방하원의원으로서 가정과 공직을 감당하는 신앙의 기초가 됐다.

한인사회 활동 속에서 열린 정치의 첫 문

괌에서 중학교를 마친 영 김 의원은 하와이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다. 이후 부모를 설득해 섬을 떠나 미국 본토의 대학에 지원했고, 남가주 대학(USC)에서 회계학을 전공했다. 대학 졸업 후에는 금융기관에서 재무분석가로 일했고, 스포츠 의류업체와 숙녀복 브랜드 분야에서도 경험을 쌓았다.

그는 캘리포니아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한 뒤 주의회와 연방하원 선거에 나서기까지 적지 않은 고비를 겪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단순한 우연이나 개인의 성취로만 보지 않았다. 영 김 의원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서 저를 이 자리에 세우 주셨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고 밝혔다.

정치와의 첫 접점은 한인사회 활동 속에서 만들어졌다. USC 졸업 후 그는 시민단체 한미연합회 활동을 하던 찰스 김 씨를 만나 결혼했고, 네 자녀를 키우며 가정과 일터를 함께 감당했다. 남편 찰스 김 씨는 오렌지카운티 한인사회와 비영리 활

동에 깊이 관여했고, 한미 관련 활동을 이어가며 에드 로이스 의원과도 가까운 관계를 맺었다.

당시 캘리포니아 주 상원의원이던 에드 로이스가 1990년 무렵 영 김 의원에게 의원실 일을 제안했고, 남편의 격려 속에 그는 정치 현장에 발을 들였다. 처음에는 파트타임으로 시작했지만 실제로는 풀타임처럼 일했다. 이후 에드 로이스가 1993년 연방하원의원으로 당선되면서 영 김 의원은 정식 보좌진으로 합류했고, 2013년까지 20년 넘게 그의 의원실에서 일했다.

한미동맹과 북한 인권, 23년 보좌관 시절에 다져진 의정의 뿌리

영 김 의원은 에드 로이스 의원실에서 일하며 미국 정치와 한미 현안을 동시에 배웠다. 한미관계, 북한인권, 통상, 독도 문제 등 여러 한반도 현안을 가까이서 다뤘다. 에드 로이스 의원이 한미의원연맹 미국 측 의장을 맡았을 때는 미국 측 실무자로 일했고, 탈북자 인권 문제를 다루는 세계의원연맹이 조직될 때도 미국 측 실무 역할을 맡았다.

영 김 의원은 초당적 지지를 이끌어내는 법안 처리 방식도 이 시기에 배웠다고 했다. 그는 “연방하원의원의 보좌관으로 일하면서 법안의 필요성을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미리 공동발의자를 확보해야 하는지에 대한 노하우를 배웠다”며 “그것이 저의 성공적인 의정 활동의 결실이 아닌가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그는 제118대 의회 임명효과성 평가에서 캘리포니아 출신 연방 상·하원의원 중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고, 하원 전체 10위, 하원 공화당 8위에 올랐다. 그는 제119대 의회에서도 37개 법안을 하원에서 통과시켰고, 이번 회계연도에만 3개 법안이 대통령 서명을 거쳐 법으로 제정됐다고 밝혔다.

김대원 기자 → 3면에서 계속

당일송금 당일지급
송금·환전
 한국 돈이나 달러가 필요하신 분?
 현금 즉시 캐쉬 OUT / 신속 정확
 소액~고액 송금 / 당일환전 가능
 타운니 최고의 호텔, 레스토랑, 호텔
 미국 ↔ 한국 (213)400-6363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상법/부동산법, 세법, 상속, 운송법, 국제법, 특허법에 걸쳐 오랜 기간 그 실력을 인정받아 온 마동환 변호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그 어느 분야보다도 상법에서는 지략과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피지가 이루어지려면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긴밀한 대화와 그로인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마동환 변호사그룹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213.820.3704

태양광, 솔라!!
 2026년 대박
 ☑ 상설용 건물 Tax Benefit 60% ~ 80%
 ☑ 연방ITC: 30% 이상
 ☑ 송과 설비의 평가상각비 총 60%를 다음해에 공제 가능(2026년 설치 시)
 ☑ 원금 회수기간: 3년~6년
 ☑ 교회는 공사비의 40%까지 인센티브 가능(Direct IRS)
BTS SOLAR DESIGN 213.500.8000



www.marhlaw.com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 변호**: 의뢰인의 처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 변호
- 실력**: 문제의 핵심이슈 파악, 법에 관한 해박한 지식과 적용
- 정성**: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하는 것을 원칙
- 책임**: 모든 과정에 대한 책임, 의뢰인과의 대화 창구 활짝 열림
- 신뢰**: 의뢰인과의 인연을 소중히 생각

상법/부동산법
 상법의 전반적인 분야(비즈니스, 부동산법, 세관법, 운송법, 국제법, 특허법)에 걸쳐 오랜 기간 그 실력을 인정받아 온 마동환변호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그 어느 분야보다도 상법에서는 지략과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피지가 이루어지려면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긴밀한 대화와 그로인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뱅크럽시
 뱅크럽시는 새로운 출발은 물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법이기도 하지만,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로 선택하지 해서는 안됩니다. 꼭 변호사와 상담을 하신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원)마동환 변호사 그룹 대표
 (원)국번이없는 USA 이사장
 (원)남가주 고미업의회 고문 변호사
 (원)제미발명가협회 고문 변호사
 (원)중부상공회의소 이사장

마동환 변호사그룹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대면·전화상담 예약 모든 상담 절대 비밀 보장
213.820.3704
 사무실 : 213.487.9190
 F a x : 213.487.9484 marhlaw@yahoo.com
 Main : 700 S. Flower St., #1000 LA, CA 90017
 3435 Wilshire Blvd, #2700 LA, CA 90010

영적 위기 속 미국... 한인교계, 무릎 꿇고 기도하다

2026 '국가기도의 날' 연합 기도회가 7일 오후 7시 나성영락교회(박은성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기도회는 "온 열방이 그를 찾아 영광을 선포하라"(역대상 16:24)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미주성시화운동본부와 나성영락교회, 남가주한인음악협회 등이 공동 주관했다.

행사는 1부 예배와 찬양, 2부 특별기도회 순으로 이어졌으며, 남가주 지역 교계 지도자들과 선교사들이 참여해 미국과 세계선교, 차세대, 북한, 전쟁 종식 등을 위해 함께 기도했다.

1부 예배에서는 박은성 목사가 '온 열방이 그를 찾아 영광을 선포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후 특별기도 순서가 이어졌다.

특별기도 시간에는 이재환 선교사가 회개와 미국 지도자를 위해 기도를 인도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미국을 선택해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하

셨다"며 "그 가운데 한국도 사용하셨다는 것이 놀라운 은혜"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지금 절체절명의 영적 위기에 처해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약 1만5천 개의 교회가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무거웠다"며 "기도 인도를 부탁받고 가장 먼저 회개하게 됐다. 미국 시민권을 가진 크리스천으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얼마나 기도했는지 하나님 앞에 돌아보게 됐다"고 고백했다.

그는 "마지막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하나님께서 여전히 미국과 한국을 사용하실 줄 믿는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축복이다. 코리아 스타일로 뜨겁게 기도하자"고 참석자들을 독려했다.

또 김상현 목사(남가주주안예교회는 대통령과 미국 연방정부를 위해 기도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자기 자랑으로 바



국가기도의날 연합 기도회 참석자들이 기도하고 있다. ©기독교일보

꾸지 않게 하여 달라. 법을 집행하는 자들에게 정직을 주시고, 공직자들에게 충성된 마음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했다.

김종호 목사(연합선교교회)는 미국의 주요 현안들을 위해 기도했다. 그는 "미국은 기초가 너무 좋은 나라"라며 "초기 아메리카 개척자들은 먼저 교회와 학교를 세우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신앙 계승에 힘썼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다면 부모들이 먼저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해야 한다"며 "이 땅 가운데 청교도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달라"고 간구했다.

또한 김은목 목사는 세계 평화와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했다. 그는 "전쟁과 휴전, 종전 문제를 나누는 가운데 의견이 어그러지면 다시 포성이 울리게 된다"며 "평화의 왕 되신 주님이 오실 때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임할 줄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안에도 영적 전쟁이 있다. 평화를 위해 기도할 때 마음속 전쟁에서 먼저 승리해야 한다"며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기를 원한다. 끝까지 감당해야 할 사명은 선교"라고 말했다.

또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뜻을 이루실 것"이라며 "주님께서 맡기신 선교의 사명을 기억하며 계속 기도하자"고 강조했다. 이날 모인 참석자들은 이어 대한민국과 차세대를 위한 기도를 했다.

한편 미국의 국가기도의 날은 1775년 대륙회의에서 처음 선포된 이후, 1952년 해리 트루먼 대통령에 의해 공식 연방 기념일로 제정됐다. 매년 5월 첫째 목요일로 지정된 이날은 국가적 위기 속에서 국민이 함께 기도와 회개로 나아가며 영적 회복을 구하는 날로 이어지고 있다.

토마스 멩 기자

북한 억류 선교사 3인, 아르헨티나서 '인권상' 받는다

북한에 10년 넘게 구금되어 생사 조차 불투명한 한국인 선교사 3명이 지구 반대편 아르헨티나에서 인권 옹호의 공로를 인정받는다.

기독교 인권단체 국제기독교연대(ICC)는 최근 김정욱(62)·김국기(72)·최춘길(70) 선교사가 오는 8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되는 '그라시엘라 페르난데스 메이히데 인권상'의 수상자로 결정됐다고 11일 발표했다. 억류 상태인 이들을 대신해 시상식은 대리 수상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 상의 명칭이 된 메이히데는 아

르헨티나 군부독재 시절 강제 실종된 아들을 찾기 위해 인권 운동에 투신했던 상징적인 인물이다. 권위주의 체제 아래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시민적 자유를 위해 헌신한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되는 만큼, 이번 수상은 북한 내 종교 탄압과 인권 실태를 국제사회에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세 선교사는 과거 중국 접경 지역에서 탈북민 보호와 인도적 지원 활동을 펼치다 북한 공작원에 의해 차례로 체포됐다. 김정욱 선교사는 2013년 입북 직후 붙잡혔으며, 이

해인 2014년 김국기 목사와 최춘길 선교사가 간첩 혐의 등으로 기소돼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 북한은 현재까지 이들의 생사 확인 요청을 거부하고 노동 수용소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이들의 구금은 기독교 선교사라는 종교적 정체성과 외국인이라는 신분에 근거한 명백한 차별적 조치이자 국제법 위반"이라고 규정했다. 실무그룹은 북한 당국에 이들의 즉각적인 석방과 더불어 적절한 피해 보상을 권



북한 억류 한국인 선교사 3인. (왼쪽부터 순서대로)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 ©VOA

고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현재 북한 내 수용소에 갇힌 기독교인이 3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노형구 기자

나성한인교회, 창립 50주년 기념 찬양 축제

나성한인교회(신동철 목사)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5월 16일(토) 오후 5시, 분당에서 찬양 축제를 개최한다.

1976년에 이민 1세들의 눈물 어린 기도로 세워진 나성한인교회는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찬양 축제에는 나성한인교회 연합 성가대를 비롯해 남가주 장로성가단(34년 전통), 브니엘 여성합창단, 남성선교합창단, OC KMC, 블레스 여성합창단, 베아투스 합창단 등 남가주를 대표하는 7개 합창단이 출연한다. 또한 바이올리니스트 도미니 안, 소



프라노 황혜경, 크리스틴 해수 김 등 솔리스트들의 특별 무대도 마련된다.

신영수 부목사는 "이민 교회가 5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큰 감사"라며, "지역의 우수한 찬양팀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서로

격려하며 연합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종신대와 캐나다 토론토대학 신학대학원에서 신학과 신학석사, 및 박사과정을 수료한 신동철 목사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10여년 간 목회했으며 2015년 이 교회의 제4대 담임으로 부임했다.

50주년 찬양축제
5월 16일(토) 오후 5시
주소: 2240 N. Eastern Ave, LA, CA 90032

LA베이직교회 새 처소로 이전



동성결혼 반대와 동성애 목회자 안수 반대로 미 연합감리교회(UMC)에서 탈퇴해 약 2년 반 전에 개척된 LA 베이직교회(이선기 목사/ 교단: 글로벌 연합교회GMC)

가 새 장소로 이전하고 온 세대 통합 예배로 첫 예배를 드렸다.
주소: 340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9
문의: (213) 255-0541

제15회 이단대책세미나 개최

SNS 이단, 하나님의교회, 신사도운동까지
지금, 교회를 위협하는 이단의 실체를 진단합니다.



조남민 목사
-세이언 사무총장
-한인성경선교회장
-Tyndale 신학교 한국지부교장



한선희 목사
-미이연 회장
-미주기독교이단상담소 협회장
-세계기독교이단상담연구소장

- 날짜 : 6월 8일(월) 오전 9:30 - 오후 5:00
- 장소 : 나성제일교(담임 서종천 목사)
213 S, Hobart Blvd, Los Angeles, CA 90004
- 강사 : 조남민 목사, 한선희 목사
- 선착순 50명 (사전 신청 필수, 점심 제공)
- 신청 기간 : 5월 11일 ~ 5월 31일
- 신청 : 참여를 원하는 경우 아래 링크 또는 QR 코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s://forms.fillout.com/t/7RQzeeJT8us>



주최 : 미주기독교이단대책연구회

기도와 연단의 시간을 지나, 입법효과성 1위 의원이 되기까지

- 주의회 때부터 이어진 기도 모임... 공직을 붙든 신앙
- 23년 보좌관 경험, 입법 감각과 협치의 토대가 되다
- 캘리포니아 연방 의원 중 입법효과성 연속 1위 평가
- 당 원칙 지키며 민주당 의원 설득... "비결은 꾸준함"
- 위기의 동아시아, 한미일 협력과 북한 인권 강조

→ 1면 기사 <영김 의원의 신앙과 도전>에 이어서
낙선과 재도전 사이에서 붙든 마태복음 19장 26절

영 김 의원의 정치 여정은 한 번에 열린 길이 아니었다. 그는 2014년 캘리포니아 주하원의원에 당선되며 주목받았다. 한인 여성으로는 처음이었다. 그러나 2016년에는 패배했고, 2018년 연방하원 선거에서도 근소한 차이로 고배를 마셨다. 이후 2020년 다시 도전해 연방의회에 입성했고, 2022년과 2024년 재선에 성공했다.

영 김 의원은 패배의 시간이 오히려 자신을 단단하게 만들었다고 했다. 특히 지금 4선 도전을 앞둔 상황에 대해서도 "어느 때보다 정치 인생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솔직히 말했다.

의회와 거리에서도 계속된 기도 영 김 의원의 신앙은 의정 생활 속에서도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는 캘리포니아 주의회 시절 기도 모임을 시작한 경험이 있으며, 연방의회에 들어온 뒤에도 의원들과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모임에 참여하고 있다. 수요일 아침 의원 기도 모임, 주마다 있는 초당적 기도 모임, 월례 간증 모임 등은 그에게 의회 안에서 어려움을 나누고 다시 힘을 얻는 신앙의 자리다.

최근에는 뜻밖의 기도 동역자를 만나기도 했다. 워싱턴 D.C.의 거처 앞에서 하원 에너지·상무위원장을 지낸 캐시 맥모리스 로저스 전 의원의 보좌관을 우연히 마주쳤는데, 그 보좌관은 2018년 영 김 의원이 처음 연방하원에 도전하던 당시 여성 후보자



남편 찰스 김 씨와 함께한 모습. 영 김 의원은 인터뷰에서 남편의 격려가 정치의 길에 들어서는 데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 영김 의원 페이스북

러시아와 더 가까워진 북한 정권, 대만해협 긴장 등을 언급하며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비핵화와 인권을 분리해서 다룰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영 김 의원은 "북한을 대할 때 인권이 반드시 최우선 순위에 놓여야 한다"며 "북한의 끔찍한 인권 유린 실태를 문제 삼는 것이 북한 정권으로부터 검증 가능한 약속 이행을 이끌어내고, 한국과 미국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요소"라고 했다.

그는 최근 워싱턴 D.C.에서 11명의 탈북민들을 초청해 증언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특히 탈북 여성들의 증언이 마음에 깊이 남았다고 했다.

영 김 의원은 "몇 주 전에 들은 증언인데도 아직까지 제 마음에 남아 있다. 그래서 가슴이 아프다"며 "그분들은 그나마 한국에 정착했고 미국에 와서 증언할 기회가 있었지만,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북한과 중국에서 강제 노동과 심각한 학대를 겪고 있을지 상상조차 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추진 중인 북한인권재승인법안의 통과 필요성도 강조했다. 영 김 의원은 "그 안에는 북한에 방송하는 자유아시아방송이라든지 자유북한방송 같은 방송 예산을 지원하려는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며 "한시도 늦추지 않고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저 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각자 영역에서 미 의회가 움직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시 선거의 시간, 기도로 서는 자리

그에게 선거는 정치적 경쟁인 동시에 신앙의 연단이다. 매일 이어지는 선거 광고와 상대 진영의 공격, 현역 베테랑 의원과의 경쟁 구도 속에서도 그를 붙드는 힘은 기도였다. 그는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매일매일 되새기고 있다"며 "제 삶의 힘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저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지금까지 자신을 이끌어 온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에 가까웠다.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제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오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길이 쉽지 않았던 순간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제 삶의 모든 시기마다 변함없이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을 계속 믿고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영 김 연방하원의원이 선거 캠프에서 자신의 선거 포스터를 배경으로 포즈를 취하고 있다. © 기독일보

그때마다 붙든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6절이었다. 영 김 의원은 의정 활동 속에서도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는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있다고 했다.

그는 "연방하원에는 435명의 의원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한인 의원은 많지 않고, 공화당 한인 여성 의원으로는 저 하나뿐"이라며 "제가 잘나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이때에 저를 통해 이루고 싶으신 계획이 분명히 있으신 것 같다"며 "연약한 인간 영 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을 보여 주시는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들을 위해 기도했던 명단을 휴대전화로 보여줬다. 그 명단 안에 영 김의 이름이 있었고, 그 이름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다.

영 김 의원은 "그분이 '제가 2018년 영 김 후보를 두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하자 정말 울컥했다. 서로 울먹이면서 그렇게 아파트 앞 길거리에서 껴안고 기도했다"고 말했다.

이 만남은 영 김 의원에게 큰 위로가 됐다. 그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신다는 사인을 보내주시는 것 같았다"며 "정말 힘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의 용사를 보내주셨다"고 밝혔다. 이어 "하나님께서 제 주위에 기도의 요새를

세워 주시고, 힘을 잃지 말고 용기를 잃지 말고 일하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숫자로 드러난 3선 의정 활동의 성과

영 김 의원의 의정 활동은 입법 효과성과 초당성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왔다. 의정 활동에서는 세금 부담 완화와 지역 예산 확보, 정부 예산 낭비 방지, 한미동맹과 북한 인권 문제가 주요 축이었다.

입법 성과 외에도 의원실은 지역 구 민원 상담을 통해 3,300만 달러를 주민들에게 되돌려 줬고, 2026 회계연도에는 공공안전·교통·수자원·인프라 사업과 관련해 4,400만 달러 이상의 연방 예산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영 김 의원은 특히 원 빅 뷰티풀 법안(One Big Beautiful Bill)에 포함된 근로자 가정 감세 조치를 주요 성과로 꼽았다. 그중에서도 캘리포니아처럼 세 부담이 높은 주의 주민들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주·지방세 공제(SALT) 한도를 1만 달러에서 4만 달러로 올린 점을 강조했다. 또 팁 소득 비과세, 초과근무수당 비과세, 고령자 세액공제 등을 통해 근로자 가정과 은퇴자들의 부담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영 김 의원은 "이런 세금 감면 조치야말로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법안 통과와 비결로 초당적 관계를 들었다. 다만 초당성을 원칙 없는 타협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영 김 의원은 "제일 중요한 것은 저의 신념과 원칙을 지키는 것"이라며 "공화당 의원으로서 고수해야 할 원칙은 분명히 갖고 간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민주당 의원들도 설득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본회의장에서도 민주당 의원들 쪽 출입문으로 들어가 먼저 인사를 건네는 등 적극적으로 관계를 쌓아 왔다. 필요한 순간에는 전화를 걸어 법안의 취지를 설명하고, 공동발의 참여와 찬성표를 설득해 온 것도 그 연장선이었다. 영 김 의원은 이 같은 초당적 관계 형성의 비결을 "꾸준함"이라고 했다. 의원들간의 기도모임을 통한 신앙적 연대도 큰 몫을 했다.

한국 안보의 최전선, 한미일 협력과 북한 인권

영 김 의원의 의정 활동에서 한미동맹과 북한 인권은 빼놓을 수 없는 축이다. 그는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장으로서 동아시아 정세의 긴장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영 김 의원은 중국의 영향력 확대,



TRUSTED SCHOOL IN TOWN




LEARN MORE

EDUCATE ENABLE EQUIP

K-12 PRIVATE CHRISTIAN SCHOOL



3119 W. 6th Street, Los Angeles, CA 90020
Upper Campus

221 S. Juanita Avenue, Los Angeles, CA 90004
Lower Campus

CONTACT US!
(213) 487-5437
ncahuskies.org

이의완 박사 생신축하 예배, “103세에도 이어진 신앙과 헌신”

이의완 박사(전 안양대학교 총장)의 103세 생신축하 예배와 대신교단 창립 65주년, 미주 대한신학대학 설립 40주년 기념예배가 9일 오전 11시, LA에 위치한 풍성한교회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교계 인사들과 지역사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오랜 세월 신앙과 교육 사역에 헌신해 온 이 박사의 삶을 축하했다.

1부 예배는 남가주 노회장 최야곱 목사(남가주 노회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미스바 찬양단의 찬양인도와 다 함께 드리는 찬송, 대표기도, 성경봉독 순으로 이어졌다. 설교는 대신교단 총회장 정정인 목사가 맡아 이사야 46장 3절부터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품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정 목사는 “하나님께서 태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자기 백성을 품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며 “103세의 삶 속에서도 하



이의완 박사의 103세 생신축하 예배와 대신교단 창립 65주년, 미주 대한신학대학 설립 40주년 기념예배가 풍성한교회에서 열렸다. ©기독교일보

나님의 신실하심이 증거되고 있다. 이의완 박사의 삶은 한 세기를 넘어 믿음과 헌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귀한 간증”이라고 강조했다.

예배 중에는 대신교단 회관 헌당을 위한 헌금 순서와 축하 순서도 이어졌다. 김병도 목사, 지용덕

목사, 이정현 목사 등이 축사를 전했다. 장태봉 목사의 축사와 에스터 한 목사의 축시 낭독도 진행됐다. 또한 미주 대한신학대학 AI 선교학 부학장 이정균 박사의 축하 기념글이 소개됐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김영완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가 축사를

통해 “교육자이자 신앙의 선구자로 헌신해 온 이의완 목사님의 삶에 깊은 존경을 표한다. 목사님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나눔의 발자취는 우리 동포사회의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다”며 “대신교단과 미주 대한신학대학은 단순한 종교 활동을 넘어 동포사회의 안식처가 되었고, 차세대 지도자를 양성하며 커뮤니티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 왔다”고 말했다.

행사에서는 캘리포니아주 상·하원의원들과 연방의회 관계자들의 감사장 전달도 이어졌다. 최석호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 샤론 퀴크-실바 하원의원, 주디 추 연

방하원의원 등의 축하 메시지와 감사장이 전달되며 이의완 박사의 공로를 기렸다.

2부 순서는 “이의완 박사님 103세 헌정 특별 축하 찬양의 시간”으로 진행됐다. 서울방송 AM 1650 아나운서 최선미 씨의 사회 가운데 미주 대한신학대학 교가 제창, 클라리넷 연주, 바이올린 독주, 특송과 합창 등이 이어졌다.

특히 Los Angeles Mission Choir 중창단의 찬양과 김숙영 교수, 김기홍 테너의 듀엣 특송은 참석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전했다. 마지막 축도는 풍성한교회 담임 박효우 목사가 맡았다.

행사 관계자는 “103세라는 긴 세월 동안 믿음과 교육 사역에 헌신해 온 이의완 박사의 삶은 다음 세대에게 큰 본이 되고 있다”며 “이번 기념예배는 교단과 신학교의 역사와 사명 또한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했다.

토마스 맹 기자



오네시모 선교교회 5월 17일 재출범

오네시모선교회는 5월 17일 주일 오후 2시, 오네시모 선교교회를 재정비하고 첫 예배를 드린다. 예배는 선교회 사무실이 위치한 재플 (7751 Stanton Ave., Buena Park, CA)에서 진행된다.

오네시모 선교교회는 예배소서 2장 19절 말씀을 바탕으로, “그리스도를 만나고 함께 속하며,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는 슬로건 아래 사역을 이어간다.

이번 재정비는 새로운 리더십 아래 사역의 방향과 비전을 재정립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선교회는 지난해 12월,

설립자인 김석기 목사에 이어 데릭 임 목사가 대표로 세워지며 전환점을 맞았다.

선교회 측은 오네시모가 ‘무익한 종’에서 ‘유익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변화된 것처럼, ‘유익한 일꾼’을 세우는 데 사역의 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재소자와 가족들을 위한 사역, 교도소 및 감옥 방문사역, 문서선교, 성경통신대학, 예방사역, 추방자 연결 및 재활사역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오네시모선교회는 후원회원과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고 있다.

문의: 714-739-9100



동행과 상생 교육 사역자 훈련과정 2기 모집

미주 한인교회의 다음세대 교육 사역 강화를 위한 훈련 프로그램이 열린다.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CPU) NCI, 미주복음방송(GBC), 동행과 상생(TnT USA)이 공동 주관하는 ‘교육사역자 12주 훈련과정 2기’가 오는 6월 7일부터 8월 29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과정은 지난해 진행된 1기 사역의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강화된 커리큘럼으로 마련됐다.

동행과 상생 사무총장 송병주 목사는 2기를 기점으로 영어권 프로그램 개발도 본격화될 것이라 밝혔다.

교육은 온라인 중강의와 녹화 강의, 현장 강의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돼 미주 전역 어디서나 참여할 수 있다. 교회학교 디렉터, 평신도 사역자, 교사 및 다음세대 사역에 관심 있는 누구나 수강할 수 있다.

커리큘럼은 발달 단계별 복음교육, 한인 2세 정체성과 기독교 교육, 공교육과 기독교 가치관, 가정 연계 사역, 어린이 예배와 성령, 상담과 치유, 디지털 리소스 활용 등으로 구성된다. 수강료는 \$300.

문의: tntusainfo@gmail.com | www.TNTUSA.org



인랜드교회 2026 장학생 모집

인랜드교회 장학위원회에서는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인랜드교회 교인 및 지역 크리스천 대학생, 또는 신학생 (2026년 가을 진학 예정자 포함)을 대상으로 장학생을 모집한다. 마감은 6월 21일 주일, 수여식은 7월 예정.

장학금은 1인 당 \$500-\$1,000이며, 지원자격은 ▲ 공인된 4년제 대학/신학교에 재학중이거나 2026년에 진학 예정인 자 ▲ 예수를 주로 고백한 크리스천 ▲ 누적 성적(GPA)이 2.5/4.0 이상 ▲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이다. 제출 서류는 인랜드교회 장학금 지원 신청서 1부, 추천서 2부, 공인 성적 증명서 1부, 2026년 가을학기 등록증명서 1부 (진학 예정자의 경우 해당 대학/신학교 합격 증명서 1부 추가 제출), 학생 본인과 부모님의 가장 최근의 세금보고서 각 1부이며, 구글 플링크나 이메일로 제출해야 한다.

신청 마감: 6월 21일(주일)
신청 링크: <https://www.inlandpca.com/scholarship>
문의: scholarship@inlandchurch.org

아버지 밥상교회(홀리스미션)
홀리스 영혼들을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력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무디 고 목사 T.(213)364-7289
2551 W. Olympic Blvd, LA, CA 90006
9030 Duncan Rd, Victorville CA 9239
34191 Harvard rd Newberry springs ca 92384

김영길 목사의 가슴으로 읽는 성경
지친영혼을 깨우는 아침 10분 처방전
큐알코드 촬영 후 구독신청해 주세요
영혼을 위한 아침 처방전(Morning Prescription)
[복용법] 매주 월/수/금 아침, 출근길이나 조용한 시간에 복용하세요.
[효능] 불안 완화, 마음의 편안, 영적 회복
Youtube.com / @Youngkimgamsa

태양광, 솔라!! *전기세 50~90% 절감*

주택용 30% Tax Credit / 상업용 최대 80% Tax Benefit

무료 설치 서비스
전기차에 필수인 240V 아울렛을 무료 설치해 드립니다.

백업용 배터리
정전에도 끄떡없고 절약을 위한 옵션, 고객님의 **원가에 제공**
SCE 지역 필수 / LADWP 선택 옵션

초기부담 없는 \$0 다운부터
풀 페이먼트 / 할부 결제 / PPA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솔라 설치 가능

Why BTS Solar?
www.btssolardesign.com

QR CODE
SCAN ME

상업용 건물, Tax Benefit 60% ~ 80%

텍스 크레딧: 최대 30%
감가상각: 최대 80% 적용
(2026년 설치 시)

- 원금 회수기간: 3년 ~ 6년
- 전기료 절감: 최대 90%

213.500.8000 | **213.798.2200**

LA 2621 W. Olympic Blvd, #206 Los Angeles, CA 90006 | **OC** 6904 Oran Cir, Buena Park, CA 90621

강신욱 M.D / 김남주 N.P / 김민성 M.D / 김영래 M.D / 김인자 M.D / 김진세 M.D / 김태원 M.D / 김학준 M.D
 대니얼 김 M.D / 박수영 M.D / 박윤석 M.D / 박중원 M.D / 성동진 M.D / 손동수 M.D / 송홍우 D.O / 신예용 D.O
 안우성 M.D / 양진홍 M.D / 오희용 M.D / 윤은주 M.D / 이광혁 M.D / 이용태 M.D / 이익준 M.D / 이헌녕 M.D
 이현주 M.D / 임대순 M.D / 임승하 M.D / 정만길 M.D / 제인공 M.D / 조아라 M.D / 조이스리 M.D / 찰스 김 M.D
 최지나 F.N.P / 프랭크 최 D.O / 허준 M.D / 헬렌 강 M.D / 황인용 M.D

당신의 주치의[♡] 당신의 이웃입니다



 **센터메디컬그룹**
(888) 847-3098

기독교인이 ‘점’을 본다? ‘신앙의 무속화’ 어디까지 왔나

최근 한국교회 안에서 ‘신앙의 무속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조사에서는 교회에 출석하는 개신교인 5명 중 1명이 최근 3년 내 무속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성도 4명 중 1명은 부적을 지니는 것에 대해 큰 거부감이 없다고 응답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을 단순한 호기심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가 직면한 영적·문화적 위기의 징후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무속 콘텐츠가 영화와 드라마를 넘어 예능과 유튜브, SNS와 AI 기반 콘텐츠까지 확장되면서 젊은 세대에게 하나의 놀이 문화처럼 소비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곳을 하는 모습(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 ©기독교일보DB

◆ “포스트기독교 시대 속 무속 문화 재등장”

김영한 박사(기독교학술원장, 숭실대 명예교수)는 오늘날의 시대를 “포스트모더니즘과 종교다원주의가 결합된 시대”라고 진단하며 “전통 기독교 신앙의 약화가 무속 문화 확산과 맞물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박사는 “유럽과 서구 사회 역사 오랜 시간 기독교 문화를 유지했지만 기독교 신앙이 무너지면서 다시 이방 종교와 마법적 세계관이 부상하고 있다”며 “한국 사회 역시 기독교 이전부터 이어져 온 샤머니즘적 전통이 문화 깊숙이 남아 있기 때문에 무속 콘텐츠와 쉽게 접촉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국인들의 문화적 원형 속에는 여전히 무속적 심성이 잠재돼 있다”며 “기독교인이라고 해도 세속 문화 속 무속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접하게 되면 내면에 남아 있던 무속적 요소가 자극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최근 흥행한 무속 소재 영화와 콘텐츠의 유행에 대해 “단순한 문화 현상이 아니라 전통 기독교 질서가 약화된 시대적 흐름 속에서 등장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김 박사는 한국교회가 이러한 흐름 속에서 성경적 기독교의 정체성을 더욱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종교다원주의는 모든 종교가 동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주장하지만 한국교회는 성경적 기독교의 본질을 지켜야 한다”며 “복음주의 신앙과 말씀 중심의 신앙 위에 설 때 교회가 존재 이유를 유지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구약성경에서도 무속적 행위는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

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며 “오늘날 한국교회는 세속 문화와 종교다원주의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제는 죄책감도 없다… 무속이 놀이문화가 된 시대”

이춘성 목사(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 사무국장, 분당우리교회 협동 목사)는 최근 무속 현상의 가장 큰 특징으로 ‘놀이문화화’를 꼽았다. 이 박사는 “과거에는 점집을 찾거나 사주를 보는 일이 숨기고 싶고 부끄러운 일이었다”며 “하지만 지금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사주나 운세를 단순한 놀이문화나 재미 요소로 소비하는 분위기가 강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예전에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삶의 고통 때문에 무속을 찾는 경우가 많았다면 지금은 ‘재미로 하는 건데 뭐가 문제냐’는 인식이 퍼져 있다”며 “무속에 대한 죄책감이나 경계심 자체가 상당히 약화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에는 비기독교인들조차 점집을 찾는 일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았지만 지금은 공중과 방송과 유튜브, SNS를 통해 무속 콘텐츠가 자연스럽게 소비되고 있다”며 “이런 문화가 교회 안으로까지 유입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박사는 종교사회학에서 말하는 ‘중층 신앙’ 개념도 언급했다. 그는 “한국 사회는 역사적으로 불교·유교·도교·샤머니즘 등이 혼합돼 형성된 종교 문화를 갖고 있다”며 “한국 기독교는 오랫동안 이런 혼합주의를 경계하며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왔지만, 최근 들어 다시 토속 종교적 심성이 기독교 안으로 스며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청년 세대는 이를 놀이문화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하고 중장년층은 전통적인 토속 종교 심성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며 “결국 지금의 신앙의 무속화 현상은 세속 문화와 한국인의 종교적 심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 박사는 한국교회의 대응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신론 교육과 복음에 대한 명확한 가르침이 필요하다”며 “무속이 단순한 재미 차원이 아니라 우상숭배의 문제라는 점도 분명하게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 AI를 활용한 운세 콘텐츠와 온라인 사주 서비스가 확산되는 현상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처음에는 재미로 시작하지만 결국 인간은 미래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점점 의존하게 된다”며 “그 과정에서 하나님보다 점술과 무속적 요소에 더 의지하게 되는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 “교회가 안전한 공동체 되지 못한 현실도 영향”

정재영 박사(실천신대 종교사회학, 21세기교회연구소장)는 신앙의 무속화 현상을 단순히 개인의 이탈로 보기보다 교회 공동체의 구조적 문제와 연결해 해석했다.

정 박사는 “요즘 젊은 세대는 무속을 더 이상 미신으로만 여기지 않고 전통 문화나 놀이 문화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경

향이 강하다”며 “또한, 교회 안에서도 죄의식이나 문제의식이 약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사주 카페와 점집이 심리적 위로 공간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정 박사는 “점집이나 사주 카페에서는 사람들이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고 대화를 나눈다”며 “사회학적으로는 이런 과정이 일종의 심리 치료 효과를 갖는다고 분석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자신의 깊은 고민과 상처를 안전하게 나누지 못한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라며 “기도 부탁이나 상담 내용이 공동체 안에서 퍼지는 경험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교회보다 외부 공간에서 위로를 찾게 된다”고 진단했다.

정 박사는 또 “점술은 즉각적인 답변과 행동 지침을 제시한다는 특징이 있다”며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빠른 해답을 제공한다는 점이 의존성을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성경적 관점에서는 무속 의존이 분명한 경계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성경에서도 점쟁이나 무당을 찾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며 “결국 한국교회 안의 기복주의 신앙과 물질 중심 신앙이 이런 현상을 더욱 강화시킨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복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복을 이해해야 하는데 물질적 성공과 행통 자체가 신앙의 목표처럼 여겨지다 보니 하나님께 구하는 무속에 의지하든 경계가 흐려지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서장원 박사(한국개혁주의설교

연구원 이사장, 전 총신대신대원 교수)는 신앙과 무속의 혼합 현상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서 박사는 “저는 신자라고 하면서 점집에 가거나 무속신앙에 기웃거리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우상숭배의 죄에 빠지는 것이라고 본다”며 “과거를 잘 맞춘다고 미래가 지 맞힐 수 있는 존재는 아니다. 미래의 일은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뿐”이라며 “귀신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신뢰하고 존중하여 여기는 겸허한 자세로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시편 107편 10~11절 말씀을 언급하며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게 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 “신앙의 무속화, 한국교회가 직면한 시대적 과제”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한국교회 안에서 진행되는 신앙의 무속화 현상이 단순한 유행이나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한국 사회 전반의 문화 변화와 종교 환경 변화 속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문제라고 진단했다. 특히, 무속이 더 이상 음지 문화가 아니라 대중문화와 결합한 콘텐츠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교회 역시 성도들의 불안과 상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어떻게 복음 안에서 돌보고 치유할 것인지에 대한 과제를 마주하게 됐다는 분석이다.

또한, 성경적 신앙 교육의 약화와 기복주의 신앙, 종교다원주의 문화 확산, 공동체 신뢰 약화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리면서 신앙의 무속화 현상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교회가 이러한 시대 속에서 복음의 본질과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더욱 분명하게 가르치는 한편, 성도들이 안전하게 자신의 삶을 나누고 돌봄 받을 수 있는 공동체 회복에도 힘써야 함을 강조했다.

장지동 기자

기독교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편집고문

고승희, 김영길, 김중연, 김한요, 류종길, 민중기, 박기호, 송정명, 신성욱, 이상명, 이종용, 임성진, 정우성, 진유철, 한기홍

자문위원

강태광, 고광선, 고창현, 구경호, 구봉주, 국윤권, 김중규, 류용렬, 박은성, 박일서, 오명찬, 우영화, 최현규, 한현중, 써니킴

- 발행인 : 이인규
- 편집국장 : 맹창현
- 고문번호사 : 정찬용
-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daily.com
- 주소 : 3055 Wilshire Blvd, #480, LA, CA 90010
- 이사장 : 폴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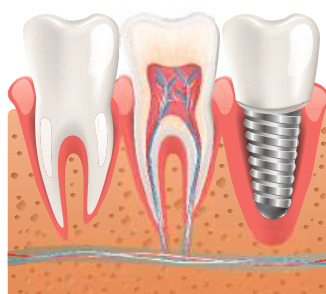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바른 선택을 원하신다면 올림픽치과로 오세요. 임플란트, 신경치료, 크라운, 보철, 틀니 등 모든 일반치과의 진료를 최신장비를 갖추고 친절하고 꼼꼼하게 진료하는 에스더 이원장님께 안심하고 치료받으세요. 3D 디지털 임플란트 도입해 운영, 첨단 장비와 기술력으로 빠르게 치료와 회복

임플란트 치과 체크 사항은?

- ☑ 원장님이 초년부터 수술, 사후관리까지 진료하는가?
- ☑ 임플란트 재료는 검증 받은 제품인가, 보증서가 있는가?
- ☑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 ☑ 경험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수술 사례가 있는가?
- ☑ 엄격한 소독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에스더 이 원장

올림픽 치과 213.385.4011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 + Menlo Ave. 뉴 서클 호텔 건너편)



사람을 살리는 슈퍼푸드, Teloyouth 퇴행에서 재생으로! 노화에서 역노화로!

주요 라디오 · 신문이 주목한 텔로유스(TeloYouth) 젊음회복 프로그램
LA 라디오코리아, 라디오서울, 우리방송, CBS 기독교TV, NY 라디오코리아, NY K라디오, 아틀란타 라디오코리아 등 주요 방송사와 중앙일보, 한국일보, 뉴욕일보, 타운뉴스, 교차로, 밸리뉴스 등 주요 신문사가 주목하고 있는 차세대 젊음 회복 기술, 텔로유스를 소개합니다.



건강의 '마스터 키', 줄기세포

텔로유스는
우리 몸의 골수에서 줄기세포 배출을 최대 3,600%까지 유도하는 10년 이상 앞시간 세포신호(Cell Signaling) 기반의 최첨단 생명공학 기술로, 몸 전체의 구조적 균형, 기능적 회복, 그리고 감정적 체계까지 근본적으로 되살리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회복 프로그램입니다.

Teloyouth의 특징

- 온몸의 세포 기능과 구조, 그리고 감정적 체계까지 회복
- 생체나이 검사에서 13년 젊어진 사례
- 재구매율 91%
- 12개월 머니백 개런티
- 12가지 글로벌 품질인증
- 6가지 임상실 (독일 대학교, 콜로라도 대학교, 마이애미 대학교, 노르웨이 병원 등)

퀀텀 젊음회복 6개월 프로그램 패키지 \$2,478



프로모션 \$2,478 패키지 구매시 텔로유스 파우더 한병(\$300)

12가지 국제인증마크와 제3기관 임상실험들, 그리고 수많은 체험사례들이 텔로유스의 퀀텀 젊음회복 프로그램을 증명합니다!

- Dr.D**Kim님: 갑자기 찾아온 전립선4기암 진단은 60여년간 의사생활을 해온 나에게도 실로 큰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젊음회복프로그램을 통해 전립선암수치를 측정하는 PSA가 400에서 209, 1.5, 0.8로 떨어지는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또한 황반변성이 좋아진 것은 신경과 전문의로서 가히 우리몸에서의 줄기세포가 불가능하다는 신경세포도 되살릴수 있음을 확인해주는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 Dr.J**Park님: 22년간 가정주치의로 많은 환자들을 돌보았지만 정작 내 자신의 혈당은 약으로도 잘 잡히지 않았습니다. 높은 혈당으로 인해 다리부종이 심하였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 혈당이 조정되며 붓던 다리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A1C 가 8.1에서 7.3으로 떨어졌습니다. 당으로 인해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적극 추천합니다.
- 이**님: 심장수술, 췌장암수술에 이어 두번의 뇌졸중이 오며 워커로 겨우 걷던 것이 지금은 혼자 걸을 수 있고, 물조차 입으로 먹을수 없어 G-tube를 낀 채 생활한지 1년이 넘었는데, 젊음회복 프로그램 5개월째인 지금, 조금씩 입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입으로 다시 음식을 먹을 수 있는것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할 뿐입니다.
- S**님: 친구들이 보톡스 맞았냐고 물어봅니다. 70대에 얼굴이 이렇게 밝아지고 팽팽할 수 있을까 거울보는 것이 행복합니다.
- J**님: 지난 40여년 사용해오던 십여가지 약에 의지하지 않아도 하루 생활이 너무 편해졌습니다.
- 이**님: 부끄러워서 숨기고만 있었던 발톱무좀이 깨끗하게 사라졌습니다.
- W**님: 20년간 복용하던 우울증약을 의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 정**님: 불면증에서 벗어나게 되었어요, 날마다 깊은 잠을 잘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 D**님: 70대이지만 동창회가면 제일 젊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날마다 젊어지는 것 같습니다
- 레**님: 90대에도 소일로 발일하시며 마을에서 제일 건강하시다는 저의 노모의 건강은 텔로유스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 F**님: 공황장애 약에 의지하지 않고도 많이 편해지고 자유로워졌습니다.
- R**님: 갱년기 증상들이 다 없어졌어요, 늘 피곤하면 나타났던 구순염도 이제는 더이상 나오지 않네요
- S**님: 평생 고생하던 천식때문에 기침을 달고 살았었는데 이제는 언제 그랬냐는 듯 너무나 멀쩡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 하*님: 무기력함이 사라지고 에너지가 뿔뿔 솟습니다.
- **자님: 80대에도 고운 피부와 젊은 에너지로 친구들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 J**님: 10년동안 고생하던 혈당조절이 이제 정상으로 잘 됩니다.
- N**님: 딸인 저를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했던 엄마가 저를 알아보세요, 이걸 기적입니다!

그 외 수많은 체험사례들을 www.TeloYouthKorean.com 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임상실험 Clinical Studies
인지기능 46.2% 향상/줄기세포배출량 377%. University of Miami
우울증개선 Blefgeil Hospital, Kongsberg, Norway
스트레스호르몬 50%까지 감소. University of Trier, Germany
성욕구/만족도 University of Trier, Germany
근육량 증가 University of Colorado



세포 신호 기술력으로 우리 몸의 줄기세포를 36배 생산 · 배출 · 활성화하여 건강 회복에 새로운 길을 제시합니다.

- 더 이상 건강 때문에 고민하지 마십시오.
- Teloyouth 12개월 젊음 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과 마음의 재생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줄기세포 사업 소개

- 5월 30일(토) 오후 2시 / 예약 마감 5월 27일(수), 예약 필수
- 부에나 파크 사무실(6820 Orangethorpe Ave. #G, Buena Park, CA 90620)
- 문의 : 714-732-8477 폴 김 수석코치

www.TeloHealing.com
www.TeloYouthKorean.com

줄기세포 건강사업 코치 모집

- 21세기 세포신호 기술 기반 젊음회복 프로그램
- 세포신호 기술력 독점, 재구매율 91%
- 코치 교육 시스템 제공
- 월 \$10,000 이상 수입 가능

문의 : 폴 김 (TeloYouth 수석코치)

☎ 714-732-8477



TELOYOUTH

www.TeloHealing.com

75주년 국가기도의 날 “하나님 아래 한 나라” 다시 서다

5월 7일 오전 미국 워싱턴 D.C. 국회의사당 조각홀(Statuary Hall)에서는 국가기도의 날 본 기념식이 열렸다. 이 행사는 국가 기도 의 날 사역 본부(National Day of Prayer Task Force)가 주관했다.

기수단 입장 및 국기에 대한 맹세, 국가 제창으로 시작됐으며 캐시 브랜젤(Kathy Branzell) 국가기도의 날 추진위원회(National Day of Prayer Task Force) 회장이 순서를 인도했다.

클라우드 킥라이터 박사(Mick, Claude M. Kicklighter), 오스 기니스(Os Guinness) 박사, 마이크 존슨(Mike Johnson) 하원의장, 스코트 터너(Scott Turner) 주택도시장관, 마가렛 키번(Margaret Kibbon) 미 하원 군목, 초등학교 6학년 때 목사를 찾아가 "교회에 기도하는 방을 만들자"고 제안했던 에디슨 뉴웰(Addison Newell) 등이 기도하고 메시지를 나눴다.

킥라이터 박사, 참전 용사들을 위한 기도문 문을 열다

첫 순서로, 킥라이터 박사가 미국의 독립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잃은 군인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기리며, 미국의 자유가 그 희생의 대가 위에 세워져 있다고 기도했다.

"우리는 특히 우리의 전쟁에 참전했던 분들을 기억합니다. 독립 전쟁, 남북 전쟁, 제1차 세계 대전, 제2차 세계 대전, 한국 전쟁, 베트남 전쟁, 사막 폭풍 작전,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라크, 중동, 이란, 우리 역사 속의 수많은 다른 국가들. 특별히 그 전쟁에서 돌아오지 못한 사

람들을 기억합니다."

"자유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력의 결과입니다. 수많은 분들의 희생을 생각하며, 그분들과 합당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캐시 브랜젤(Kathy Branzell) 국가기도의 날 추진위원회 회장이 이번 기도회의 주제가 역대기상 16장 24절에서 비롯되었다며, 미국이 '하나님 아래 하나의 국가로 다시 헌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오스 기니스의 신명기 29장 남독에 이어,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의 연설이 시작됐다.

"기도는 처음부터 우리 DNA의 일부였다"며 운을 뗀 존슨 하원의장은 미국인에게 부여된 권리-생명권, 자유권, 행복추구권-가 정부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분명히 했다. 미국 건국자의 신앙이 미국 시민제도의 성격을 형성하고, 정신을 지탱했으며, 공공 생활의 기반을 다졌다고 말했다. 올해 국가기도의 날 주제 - "하나님의 영광을 만민 가운데 선포하라, 그의 행하신 일을 모든 백성에게 알리라"가 단순한 수사가 아닌, 미국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캐시 브랜젤은 "세상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며 시작된 나라는 세 나라"라며, 이스라엘, 스위스, 미국이 이에 속한다고 말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워지고 운영될 것입니다."

스코트 터너, 바비큐 식당 접시닻기에 서 주택도시개발부 장관이 되기까지



워싱턴 D.C. 국회의사당 조각홀(Statuary Hall)에서 열린 제75회 국가기도의 날 기념행사에서 스코트 터너 장관이 메시지를 전했다. ©National Day of Prayer

스코트 터너 장관, '접시닻기를 장관으로' 이끄신 하나님 향한 신앙 고백, 로버트 파시엔자 목사, "미국의 성공에 대한 유일한 설명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에서 비롯"

텍사스 바비큐 식당의 접시닻이에서, NFL 선수를 거쳐, 주택도시개발부 장관으로 임명된 스코트 터너(Scott Turner) 주택도시장관의 메시지가 이어졌다.

"우리의 건국 시조들은 하나님이 우리 공화국의 초석임을 이해했던 신앙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도 그 진리를 알고 있기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운명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압니다."

그는 벤자민 프랭클린의 말 "참새 한 마리의 비행은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국가의 향로를 설정하시는 분"을 빌려, "저는 하나님께서 제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를 직접 목격했다고 간증했다.

그는 16살 때 그가 얻었던 첫 직장을 떠올렸다.

"열여섯 살 때 저는 생애 첫 직장을 가졌습니다. '스프링 크리 바비큐'라는 식당의 설거지 담당이었죠."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계속 상기시키는 한 가지가 있다고 고백했다. "저는 지금도 사람들에게, 그리고 제 자신에게 늘 상기시킵니다. 저는 삶의 매 단계와 거처온 모든 직업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온 '전직 설거지꾼'이라고 말입니다."

"대학 시절 NFL 콤파인 초청장을 기다렸지만 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제 NFL은 못 간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자신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후에도 하나님은 저를 인도 하였고, 결국 1995년 2월, 40야드 달리기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는

4.24초를 기록했고, 그것은 제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 가운데도 존재했다고 말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권을 얼마나 오래 붙들 수 있습니까? 상황이 우리의 믿음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상황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로버트 파시엔자 목사, "미국,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라 해"

코럴 릿지 장로교회(Coral Ridge Presbyterian Church) 로버트 파시엔자(Robert J. Pacienza) 원로목사는 "1776년, 우리 나라는 국가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함과 동시에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의존을 선언"했으나, "지금, 이 나라의 많은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하려 하는 듯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받는 복은, 하나님을 향한 의존에 바탕을 둔다고 말했다.

"역사 속에서 어떤 나라는 복을 받고 어떤 나라는 그렇지 못했는지, 어떤 나라는 정상에 오르고 어떤 나라는 몰락했는지 바로 이 원리로 설명됩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 나라의 이야기이자 1776년 이후 우리가 경험한 성공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나라의 성공은 경제력이나 군사력, 정치력에 있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성공에 대한 유일한 설명은, 이 나라가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한 남녀들에 의해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주디 한 기자

예장통합 동대위 “차별금지법, 종교 자유 침해하는 역차별 악법”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 제110회기 동성애대책위원회(위원장 김준영 목사)가 최근 국회에서 제정화된 차별금지법 제정 움직임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위원회는 지난 9일 성명을 통해 해당 법안이 종교와 양심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성명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엄한 존재로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한다"면서도 "현재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차별 방지라는 명목 아

래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종교·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위원회는 법안에 포함된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차별 행위가 반복될 경우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우는 방식이 종교단체의 정당한 활동을 위축시키고 존립을 위협하는 '역차별적 악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 현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위원회는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에 대한 옹호 교육이 학교와 공공기관에서 사실상 강제될 경우, 기

독교적 가치관에 입각한 교육권이 박탈될 것"이라며 "국민적 합의 없는 일방적 입법 추진은 사회적 분열과 갈등만 고조시킬 뿐"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를 향해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성급한 입법 대신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요구하며, 예장통합 총회는 성경적 가치와 헌법적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해 한국교회와 연대하여 지속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차별금지법은 22대 국회 들어 진보당 손승 의원(1월)과 조국



지난해 예장통합 총회 모습.

혁신당 정춘생 의원(2월)이 각각 관련 법안을 발의하며 다시금 정

점으로 떠오른 상태다. 노형구 기자

커피와 예술이 만나는 공간!

Cafe du Gallery & E.K. Art Gallery




영/업/시/간 월~토: 9AM~7PM(일요일 휴무)

E.K. ART GALLERY

http://www.ek-artgallery.com/

문의 : 323-272-3399

1123 Crenshaw Blvd, Los Angeles, CA 90019



1. 말차 라떼-K-스타일 빙수와 함께 즐기는 전시 감상!
2. 넓고 시원한 공간, 식물과 예술이 어우러진 감각적 카페!
3. LA 코리아타운 한복판에서 즐기는 예술 같은 휴식!
4. 작업하기 좋은 와이파이·주차 가능·친절한 서비스!

CAFE du GALLERY

www.cafedugallery.net

나이지리아 플라토주, 무장 괴한 공격으로 기독교인 13명 숨져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나이지리아 중부 플라토주에서 무슬림 유목민인 풀라니족 무장 괴한들이 기독교인 마을을 습격해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고 최근 보도했다. 나이지리아 내 기독교인들을 겨냥한 끔찍한 학살이 연일 멈추지 않고 이어지면서 국제 사회의 깊은 우려를 낳고 있다.



©free3d.com

최근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5월 8일 플라토주 바사 카운티에 위치한 팔 지역의 닝브라 종고 마을에 무장한 풀라니족 목동들이 들이닥쳐 기독교인 13명을 무참히 살해했다. 미앙고 지역사회 대변인인 조셉 추두 은크파는 성명을 통해 이슬람 무장 괴한들이 사람들이 깊이 잠든 동트기 전 새벽 시간을 노려 기습 공격을 감행했다고 처참한 상황을 전했다.

특히 이번 무차별 공격으로 인해 목숨을 잃은 희생자 가운데는 임신부 3명도 포함되어 있다. 은크파 대변인은 이번 기습 테러로 수십 명의 무고한 기독교인 주민들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으며 하루 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은 수백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마을 주민인 로렌스 종고는 지역 기독교인들이 이전에도 이와 비슷한 잔혹한 공격을 수차례 겪으며 극심한 공포에 시달려왔다고 토로했다. 그는 “과거에도 같은 마을에서 목사를 비롯해 수십 명의 기독교인이 학살당하는 끔찍한 비극이 있었는데 또다시 이런 불행한 사건이 발생해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다”며 “총기로 무장한 풀라니족 무리는 마을의 집들을 일일이 돌아다니며 집 안에 있던 기독교인 피해자들을 무차별하게 살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끊이지 않는 피의 악순환 극단주의 세력의 무차별 테러

CDI는 이 지역의 비극은 이번 사건만이 아니라고 밝혔다. 은크파 대변인에 따르면 지난 4월 16일, 바사 카운티 미앙고 지역의 리우-초 마을에서 한 풀라니족 무리가 30세의 기독교인 청년 엘리샤 아바스 사쿠를 매복 공격하여 참수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난 20여 년 동안 플라토주 일대에서는 기독교인 공동체를 겨냥한 이슬람 세력의 폭력 사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공포는 지역을 가리지 않고 번지고 있다. 지난 5일 자정 무렵에는 플라토주 리움 지역의 기독교인 공동체 역시 풀라니족 목동들의 습격을 받았다.

림 지역은 불과 며칠 전인 4월 26일에도 풀라니족 무장 세력의 침략을 받아 일가족이 몰살당하는 참사를 겪었다. 기독교

교 복음주의 교회(ECWA) 측이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당시 자정 무렵 무장 괴한들이 마을에 침입해 아우바 조지 목사와 그의 아내 춘동, 그리고 두 자녀인 시릴과 인듀어런스의 목숨을 앗아갔다. ECWA 지도부는 이들이 가고 선교지의 자택에서 풀라니 민병대에 의해 잔혹하게 도륙당했다고 밝혔다.

ECWA는 굳은 결의가 담긴 성명을 통해 이들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현재 나이지리아에서 자행되고 있는 기독교인 대량 학살에 맞서 목숨을 잃은 거룩한 순교자들이라고 추모했다.

나이지리아 종교의 자유 위협 심각

나이지리아는 현재 전 세계에서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가장 많은 핍박과 죽음을 당하는 국가 중 하나다. 기독교 박해 감시 단체인 오픈 도어즈가 발표한 2026년 세계 감시 목록(WWL)에 따르면 2024년 10월 1일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 신앙 때문에 목숨을 잃은 전 세계 기독교인 4,849명 가운데 무려 72%에 달하는 3,490명이 나이지리아인이었다.

나이지리아와 사헬 지역 전역에 흩어져 사는 수백만 명의 풀라니족은 대부분 무슬림으로 다양한 가문을 이루고 있으며 이들 모두가 극단주의적인 견해를 가진 것은 아니다. 하지만 영국 의회의 국제 종교 및 신념의 자유에 관한 초당적 의원 모임(APPG)이 2020년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풀라니족은 급진적인 이슬람주의 이데올로기를 맹목적으로 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악명 높은 테러 단체인 보코하람이나 이슬람 국가 서아프리카 지부(ISWAP)와 유사한 전략을 구사하며 기독교인과 기독교의 주요 상징물들을 명백한 표적으로 삼아 파괴 행위를 일삼고 있다.

나이지리아의 기독교 지도자들은 중부 지대(Middle Belt)에서 기독교 공동체를 향해 벌어지는 풀라니족 목동들의 잦은 공격이 단순히 종교적 이유뿐만 아니라 영토 확장의 야욕과도 맞닿아 있다고 지적한다.

최승연 기자

콜롬비아 종교지도자 보호 복원 촉구

콜롬비아에서 무장단체에 의한 종교 지도자 살해와 납치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특별 보호 조치를 복원하기 위한 새로운 캠페인이 시작됐다.



©Pixabay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은 콜롬비아 정부의 법령 1066호와 국가보호시스템(NPS)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지난 2023년 종교 지도자들을 ‘특별히 공격 위험이 높은 취약 계층’ 명단에서 제외했으며, 이에 따라 이들은 국가 차원의 보안 및 보호 프로그램 대상에서도 빠지게 됐다.

캠페인을 주도하는 세계기독교연대(CSW)는 “2024년 12월 이후 종교 지도자 11명이 살해되거나 실종·납치됐다”고 밝혔다. 희생자 가운데에는 새해 행사 도중 괴한의 총격을 받아 숨진 호세 오토니 엘 오르테가 목사도 포함됐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종교 지도자와 사회운동가 8명의 유해가 묻힌 집단 매장지가 발견됐다. 콜롬비아 검찰은 이들이 콜롬비아 무장반군 FARC의 분파 조직인 ‘프렌테 아르만도 리오스(Frente Armando Rios)’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보고 있다.

종교 지도자들은 지역사회에서 평화와 정의를 상징하는 존재로 여겨지는 만큼, 무장단체들로부터 활동에 대한 저항 세력으로 인식돼 공격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CSW의 캠페인은 오는 5월 31일 예정된 대통령 선거 이후 당선자에게 전달될 청원 운동과 함께 진행되고 있다.

CSW 옹호국장이자 미주 담당 책임자인 안나 리 스탕글은 “지난 2년 동안 콜롬비아는 수십 년간 이어진 내전의 가장 암울했던 시기를 떠올리게 할 정도로 폭력 수준이 다시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종교 지도자들은 지역사회에서 평화와 정의, 자유의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불법 무장세력과 범죄조직의 명백한 표적이 되고 있다”며 “차기 대통령은 현 정부가 내세웠던 ‘완전한 평화(total peace)’ 공약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하며, 특히 종교 지도자들의 취약성을 인정하고 정부 보호 프로그램과 보안 체계 접근권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경 기자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LA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미인이성경공부 오후 1:30
백송찬양대 주일 오후 1:15

평일 영혼의심예배
- 화-금 오후 7:30
- 토 오후 3:00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6031 Linden Ave, Long Beach, CA 90805
T. (562)606-2345, (424)445-807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내세예배 오전 9:15) 새벽예배 (월-토) 오전 5시
3부예배(새세대예배) 오전 11:30 (화-토) - 오전 6:00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수요청년부/도모인 온라인 오후 8시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깨우고, 이민(2세)를 책임지며, 이민가정을 치료하며, 선교명령을 순종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Olympic & Egan 코너)
T. (213)386-2233

주일예배
금요일씀과 삶 공부
아침말씀예배(월-토)

오전 10:50
오전 7:00
오전 9:00

써니김 담임목사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741 S. Crenshaw Blvd., LA, CA 90005
T. (323)833-9090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0:50
2부예배 오전 10:50 새벽예배 오전 6:00(화-금)
청소년예배 오전 10:50 토요일전새벽예배 오전 6:3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3721 Marmion Way., Los Angeles, CA 90065
T. (323) 735-6412 / gmcchurch.com

주일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토) 오전 6:30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이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439 S Western, #100, LA, CA 90020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2부예배 오전 9: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45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주일예배 오전 7:30, 9:00,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9:30
청년부예배 오후 1:30

박은성 담임목사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 (323) 227-1400 web@youngnak.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 새을 밝히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sc.org

주일1부예배 오전 7:30 분당 CMC 중교동부 오전 11:30 교육관 4층
주일2부예배 오전 9:30 분당 CMC소장부 오전 11:30 교육관 427호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분당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분당
주일4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중새벽기도회 온라인(Online)
CMC 주일학교 오전 11:30 교육관 18 수요청년부/도모인 오전 10:00 분당

김지훈 담임목사

동양선교교회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T.(323)466-1234 Email: omccofice1@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주일예배 2부 오전 9:50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6:00
주일예배 4부 오후 2:00 EM Worship Sunday 2:00

김일형 담임목사

새생명오아시스교회

1041 S. Oxford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730-7000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강지원 담임목사

새 한우리교회
말씀과 예배가 삼위일체와 성령의 임재로 이루어진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90006
T. (323) 702-6709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금요저녁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이수호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3055 Wilshire Blvd. #220., LA, CA 90010
T. (213)387-1700 olympicch@gmail.com

주일예배: 아침 10시반 라디오 방송교회
수요일예배: 저녁 7시 라디오서울 AM 1560
매일 오전기도회: 9-11시 주일 아침 6시
매일 저녁기도회: 8-10시

서사라 담임목사

주님의사랑 교회
세계선교와 함께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

216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T. (213) 574-9400
lordsllovechristianchurch@yahoo.com

1부예배 오전 8:00 GCEM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라티노 오후 5:00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초등부 주일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분당/온라인

김창섭 담임목사

세계선교교회

927 S.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6
Tel. (213) 388-1927 www.wmcla.com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한국교회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영유아, 유년부 오전 11: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5:30
중고등부 오전 10:50 토요일새벽 오전 6:00

고광선 담임목사

한길교회

4050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0
T.(323)735-0200 churchtheway@gmail.com

주일예배 오전 10:30
토요일새벽예배 새벽 6:30
EM 주일예배 오전 10:30

한현중 담임목사

LA장로교회

616 Shatto Pl. Los Angeles, CA 90005
T. (213) 407-1600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3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월-토)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교육부 오전 11:30

국윤권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블러시(Calling), 고치(Healing), 기르메(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 549-9191 / choonghyun.org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오후 7:30

김은광 목사 **백승유** 목사

우리가교회
성도된 우리가 교회입니다

1060 Crenshaw Blvd(2F), L.A, CA 90019
T.(323)610-6989, www.woorigachurcha.org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사우스베이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주일미인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일기도회 오후 7:00
3부예배 오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중고등부 예배 오전 8:40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 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45(화-금) / 6:20(토)

이형영 담임목사

남가주기쁨의교회

25500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326-0300, http://rpcsc.com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토) 오전 6:00

늘푸른동산교회

17116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562) 774-7224 / evergreenhill.org

1부예배 오전 8: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EM 1부 9:30/2부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중/고예배 오전 11:00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찬양예배 오전 9:30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KM장년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월-토) 오후 6:00)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짐으로 오병이여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cgcc.org

주일1부 오전 7:45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2부 오전 9:45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30
EM예배 1부 오전 9:45/2부 오전 11:30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2222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GROEM(에배) 오전 11:00 (토요일) 오전 6: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세리투스선교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Step Up 하고 Step Out 하는 교회 (창 6:7)
12413 E. 195 th St. Cerritos, CA 90703
T. (562)402-2919 www.cmchome.org

주일1부예배 8:00am 주일EM예배 11:00am
주일2부예배 9:30am 수요찬양집회 7:30pm
주일3부예배 11:15am 토요일예배 6:00am
주일교육부예배 11:00am 주중새벽예배(온라인) 5:30am

오렌지한인교회

643 W. Malvern Avenue, Fullerton, CA 92832
T. (714) 871-8320 / www.okc.org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영아찬양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장어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어대학찬양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모레노밸리 예배시간: 매주 일요일 오후 3시
LA 밸리 구역재단: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CRPC 모레노밸리한인교회/LA구역재단

24725 Alessandro Blvd. Moreno Valley CA 92553
T. (954) 200-0875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 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수요예배 오후 7:30
Youth/College 주일오전 11:00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1:30
찬양예배 오전 11:00(수)
종보기도회 오전 9:30(목)
제자성서 오전 9:30(금)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라구나힐스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7:00 성인 영아 예배 오전 9:00,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00 말론예배 오후 1:15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00,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2부 오전 9:15 종교개혁 오전 11:15
3부 오전 11:30 한어부 오후 1:00
4부 오후 2:00 KM대청년부 오후 2:30

얼바인은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2부예배 오전 9:15 토요일찬양예배 오전 5:30
3부찬양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오렌지카운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루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oc.com

1부예배 오전 7:2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09:1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20 금요성령예배 오후 07:30
4부예배 오후 2:00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삼당반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하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주일예배 1부 오전 7:45 수요성령예배 오전 10:00
주일예배 2부 오전 9:3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새벽예배(평일) 새벽 5:30
(월/수/금) 새벽 6:00

오렌지카운터 제일장로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9-9191 / oc1church.com

1부예배 오전 8:20 수요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주님의빛교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8
T. (714)252-9191 / www.lordlight.org

주일1부예배 오전 8:00 교회학교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유치부, 원동부,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6:00 평일 유년부, 원동부,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토요일새벽부흥회 토 오전 6:00 한글학교 주일 오후 1:00
금요성령집회 오후 7:30(매달 마지막 금요일)

주님세운교회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310) 315-4020

LA 동부 지역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전 11:40
3부예배 오전 11:40 금요성령집회 저녁 7:30(금)
EM(Holy Wave)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랑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590-3722 www.eastsarang.org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45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30
주일학교 오전 11:20 (토) 오전 6:00
영아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한빛장로교회

11608 Valley Blvd., El Monte, CA 91732
T. (626)444-0521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말씀강해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수요일예배(월-금) 5:30(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622-2324, F. (909)622-1480 / inlandchurch.org

美 목회자 정신건강은 회복됐지만 직무 만족도는 하락



©pixabay

미국 목회자들의 정신 건강 상태와 사역에 대한 자신감은 지난 10년 사이 개선된 반면, 직무 만족도는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바나 그룹(Barna Group)은 기술 플랫폼 기업 글루(Gloo)와 협력해 진행한 '2026 교회 현황(State of the Church)'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보고서는 자신의 사역 역량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목회자 비율은 조사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목회 사역을 수행할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는 목회자의 비율은 2015년 이후 꾸준히 감소해 왔다. 특히 최근 3년 사이에는 2023년 64%에서 2026년 44%로 20% 포인트 하락했다. 번아웃을 경험한다고 답한 목회자 비율도 10년 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는 75%가 정서적·정신적 소진을 자주 또는 때때로 경험한다고 답했지만, 현재는 60%를 약간 웃도는 수준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직업 만족도는 하락세를 보였다. 현재 자신의 '목회 소명'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한 목회자는 52%로 집계됐다. 이는 2015년 같은 응답 비율인 72%와 비교해 크게 감소한 수치다.

반면 "어느 정도 만족한다"고 답한 비율은 같은 기간 26%에서 40%로 증가했다.

현재 섬기고 있는 교회의 사역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고 답한 목회자 비율 역시 43%로, 10년 전 53%보다 감소했다. 반면 "어느 정도 만족한다"는 응답은 45%로 증가했다. 다니엘 코프랜드(Daniel Copeland) 바나그룹 연구부문 부사장은 성명을 통해 "목회자들은 현재 소명과 관련해 최근 몇 년 사이 가장 건강한 정서 상태에 있다"면서도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 보다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사역을 이어가고는 있지만 그 자체에서 깊은 성취감을 느끼지는 못하는 상황에 적응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바나그룹은 목회자의 역할과 책임이 개인의 감정과 은사에 더 잘 맞춰질 경우 직무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코프랜드 부사장은 "자신감 회복과 무력감 감소는 매우 고무적"이라면서도 "그러나 만족도 지표는 현재의 목회 역할 자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회 지도자들은 목회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새로운 형태의 사역 모델을 보여줄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경 기자

북아일랜드 목사, 낙태 클리닉 주변 예배로 벌금형 논란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북아일랜드 법원이 낙태 클리닉 인근에서 야외 예배를 인도한 은퇴 목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해 파장이 일고 있다고 5월 8일 보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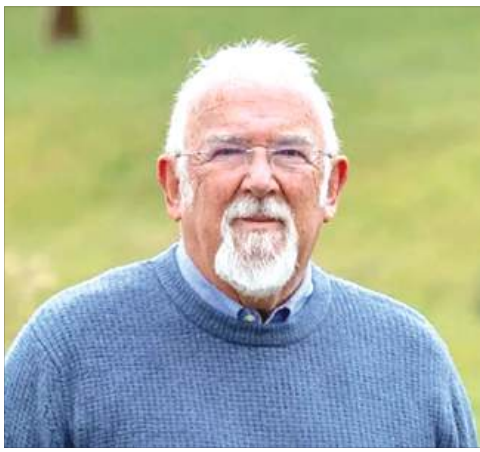
플레인 치안법원은 지난 7일 낙태 서비스(안전 접근 구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클라이브 존스턴 목사에게 450파운드(약 76만 원)의 벌금을 납부하라고 명령했다. 아일랜드 침례교회 연합회 회장을 지낸 존스턴 목사는 지난해 7월 7일 런던데리주 콜레인에 위치한 코즈웨이 병원 외곽의 이른바 '완충 구역(buffer zone)' 내에서 주일 야외 예배를 주관한 혐의를 받았다.

오스트리아 빈에 본부를 둔 유럽 기독교인에 대한 불관용과 차별 관측소(OIDAC Europe)의 보고에 따르면, 재판부는 존스턴 목사가 예배를 드린 구체적인 장소와 당시 주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그의 행위가 범죄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검찰 측은 당시 예배 현장에 대형 십자가가 세워져 있었고 마이크를 통해 찬송가가 울려 퍼졌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웠다. 이러한 행위 자체가 낙태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적 시도였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반면 존스턴 목사는 자신이 전한 설교 내용 중에는 낙태에 대한 언급이 단 한 마디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바디캠 영상에는 존스턴 목사 일행이 평화롭게 찬송가를 부르고 요한복음 3장 16절 등 성경 구절을 낭독하는 모습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모호한 완충 구역 법안 평화로운 예배도 범죄 취급 논란

존스턴 목사는 법원 청문회를 마친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참담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완충 구역 관련 법안의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해석되는 바람에 평화로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 줄지에 형사 범죄로 전락하고 말았다"며 울분을 토했다. 이어 "만약 누군가 그곳에서 고의로 말성을 피우거나 폭력을 조장하고



존스턴 목사. ©The Christian Institute

타인을 괴롭히거나 언어폭력을 행사했다면 당연히 기소되어 마땅하다. 하지만 나는 결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문제의 발단이 된 2023년 제정 법안은 지정된 완충 구역 내에서 낙태 서비스를 받으려는 '보호 대상자'에게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거나, 설령 의도가 없더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모한 행위를 하는 것을 형사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피터 킹 판사는 이 조항을 근거로 존스턴 목사에게 두 가지 혐의를 적용해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하나는 보호 대상자에게 영향을 미칠 의도나 무모함을 가지고 안전 접근 구역 내에서 행동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해당 구역에서 벗어나려는 경찰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킹 판사는 판결 과정에서 존스턴 목사가 평소 확고한 종교적 신념을 지닌 훌륭한 인품의 소유자이며, 과거부터 공개적으로 낙태 반대 입장을 견지해 온 인물이라는 점은 분명히 인정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존스턴 목사가 법의 한계를 시험하다가 결국 선을 넘어 법을 위반하는 데 이르렀다는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특히 존스턴 목사가 야외 예배 장소로 낙태 클리닉과 매우 가까운 곳을 의도적으로 선택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법원은 바로 이러한 장소 선택 자체가 유죄 판결을 내리는 데 필요한 법적 기준을 충분히 충족했다고 판시하며 이번 벌금형 선고의 정당성을 부여했다.

이미경 기자

세속화에도 성경 읽는 청년 늘어 “신앙 대화에도 적극적”



©Unsplash/Aaron Owens

최근 세속화가 확산되고 있다는 평가 속에서도 15~30세 젊은 세대 사이에서 성경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께럽과 연합성서공회, 팻모스 이니셔티브(Patmos Initiative)가 공동으로 진행한 ‘팻모스 세계 성경 인식 조사(Patmos World Bible Attitudes Survey)’를 바탕으로 작성된 ‘팻모스 청년 보고서(Patmos Youth Report)’를 통해 공개됐다.

조사에는 전 세계 85개 국가 및 지역에서 약 9만1천 명이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약 2만8천700명이 15~30세 청년층이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특히 18~24세 젊은 기독교인들은 이전 세대보다 더 자주 성경을 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적으로 이 연령대 기독교인의 절반가량이 매주 성경을 읽는다고 응답했다. 또한 이들은 신앙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성경 이야기를 전하고, 성경 말씀을 일상 속 상황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도 높은 자신감을 보였다. 연구진은 문화·경제·종교적 특성에 따라 세계를 7개 ‘팻모스 클러스터(Patmos Clusters)’로 구분했다. 이 가운데 중남미 지역(클러스터 4)과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클러스터 7)에서는 높은 종교성, 정기적인 성경 사용, 깊이 있는 성경 공부에 대한 강한 관심이 두드러졌다.

반면 유럽·북미·오세아니아 등 서구 세속권(클러스터 5)에서는 전체적으로 기독교 정체성이 약화되는 흐름이 나타났다. 다만 헌신적인 젊은 신자들은 여전히 활발하게 성경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

사됐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는 성경에 대해 더 배우고자 하는 관심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보고서는 “전 세계적으로 젊은 기독교인들이 종교의 중요성을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81%가 ‘종교가 일상생활에서 중요하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성경에 대한 관심은 기독교인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전 세계 비기독교인 가운데 약 2억4천만 명이 성경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속화된 사회에 사는 젊은 비기독교인들은 기성세대보다 더 큰 호기심을 보였다. 전 세계 응답자의 약 70%는 비기독교인을 포함해 “성경 이야기가 어린이들에게 가치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확신과 의심이 공존하는 이른바 ‘적극적이지만 확신이 없는(active-uncertain)’ 청년층 역시 성경을 인생의 중요한 질문에 대한 지혜와 안내의 원천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들은 전통적인 교회 환경보다는 앱, 영상, 팟캐스트 등 디지털 플랫폼과 친구 관계를 통해 성경에 접근하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서구 세속권에서는 성경이 개인적·사회적으로 큰 관련성이 없다고 여기는 무관심 현상이 두드러졌다.

종교적으로 다양한 아시아 지역(클러스터 6)의 경우 성경 인지도가 매우 낮았다. 응답자의 56%는 “성경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했으며, 75%는 “성경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보고서는 또 기독교 문화가 쇠퇴하는 일부 지역에서는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신앙 참여도는 낮은 ‘명목상 기독교’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미경 기자

내슈빌서 ‘유대-기독교 시온주의 대회’



▲유대-기독교 시온주의 대회. ©CBN 뉴스 보도화면 캡처

반유대주의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미국에서 유대교·기독교·아랍 공동체 지도자들이 연대 강화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참석자들은 이번 모임이 단순한 정치적 연합을 넘어 서구 문명의 가치와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CBN뉴스에 따르면, 최근 미국 내슈빌에서는 약 400명의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초의 유대-기독교 시온주의 대회(Jewish-Christian Zionist Congress·JCZC)가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1897년 테오로드 헤르츨(Theodor Herzl)이 주도한 제1차 시온주의 회의를 연상시킨다는 평가를 받았다.

주최 측은 이번 대회를 통해 유대-기독교적 가치를 지지하는 세계 각국의 지지층을 하나로 결집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JCZC 공동 설립자인 갈렙 마이어스(Caleb Myers) 회장은 CBN뉴스와의 인터뷰에서 “2023년 10월 8일 미국 대학 캠퍼스에서 약 120건의 친하마스 시위가 열린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서구 문명의 유대-기독교적 기반을 약화시키려는 조직적 움직임이 존재한다고 느꼈다”고 주장했다.

마이어스는 “전 세계에는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기독교인이 6억~8억 명에 달

하지만, 유대인은 약 1,500만 명에 불과하다”며 “전 세계 시온주의자의 대다수는 비유대인”이라고 설명했다.

리젠트대학교 산하 이스라엘연구소 A.J. 놀테(A.J. Nolte) 소장은 “전 세계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기독교인들을 교육하고 조직화해 연대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사 연사들은 이번 대회를 역사적 전환점으로 규정했다. 조니 무어(Johnnie Moore) 목사는 “기독교인들이 유대교 없이는 기독교도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 같다”며 “이것은 역사적인 변화이자 유대인과 기독교인 간의 연대와 우정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전했다. 참석자들은 이스라엘을 둘러싼 갈등이 단지 중동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에릭 메타사스(Eric Metaxas) 작가는 반유대주의와 이슬람 극단주의, 무신론적 마르크스주의, 문화 마르크스주의,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이념 등을 언급하며 “서구 사회가 실존적 위기를 맞고 있다”고 말했다. 기조연설자로 나선 예루살렘 안보 외교센터 대표 댄 디커(Dan Diker) 박사는 “이스라엘의 전쟁은 곧 서구의 전쟁”이라며 “온라인과 대학 캠퍼스를 중심으로 새로운 전선, 이른바 ‘제8전선’이 형성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혜진 기자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아기도회(마지막주)) 오후 8: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EM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7:30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10
3부예배 오전 12:00
금요일 오후 7:30
새벽예배 (화-금) 오전 6:00, (토) 오전 6:30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com

KM 주일예배 EM 주일예배 새벽예배
-1부 07:30AM -1부 09:00AM -평일(월-금) 05:00AM
-2부 09:15AM -2부 11:00AM -토요일 06:00AM
-3부 11:00AM

글로벌선교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생명의 공동체

23425 Sunset Crossing Rd Diamond Bar, CA 91765
T. (909)396-4441 www.igmc.org

대예배 11:00 AM Youth (8th - 12th) 11:00 AM
이동부 (1-5학년) 11:00 AM 수요 찬양 예배 수요일 7:30 PM
유아, 유치부 (2-5세) 11:00 AM 새벽기도회 화-토요일 6:00 AM
영아부 (24개월 이하) 11:00 AM

언약 교회
은혜의 말씀, 사랑의 돌봄

1750 N. Towne Ave., Pomona CA 91767
T. (909)622-8815 https://covenantkoreanchurch.com

주일예배 (KM) 오전 10:30 중,고등부 (Youth) 오전 10:30 **최현규** 담임목사
주일예배 (EM) 오전 10:30 대학청년부 (College) 오전 10:30
유년부 (K-2) 오전 10:30 중보기도 (Intercessory prayer) 오전 9:40
초등부(3-5) 오전 10:30

주님 CHURCH

주일예배 401 S. Palm St. La Habra, CA 90631
T. (626)901-919 Email: joonim0623@gmail.com

예배시간 매주오전 11:00

로렘나무교회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13133 Le Parc #1003, Chino hills, CA 91709
T. (909) 519-0876

LA 북부 지역, 라스베가스, 타주

주일 1부 오전 8:30 주일학교 오후 12:30 **김경진** 담임목사
주일 2부 오후 12:0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젊은이 예배 오후 2:00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동아이고 내 길에 빛이니이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1부예배 오전8:00 중,고등부(아기레슬) 오전11:00
주일2부예배 오전11:00 영아부(베베(민물레)) 오전11:00
유아유치부 오전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6:00
초등부 오전11:00 Youth 금요일(금) 오후7:30

나성북부교회
성경을 배우며 성경에 충실한교회

8756 Woodley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893-8755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이정현** 담임목사
2부 오전 10:30 한어청년 오후 12:30
EM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주일 1부 8:00AM 중,고등부 9:30AM/11:15AM
주일 2부 9:30AM 수요일기도회 7:30PM
주일 3부 11:15AM 새벽예배 월-토 5:30AM
영아, 유아, 유치부 9:30AM/11:15AM

에브리데이교회
예수로 충만한 교회

17037 Devonshire St, Northridge, CA 91325
Tel. (818) 832-6628 www.churcheveryday.org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오전 9:00 **오영찬**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오전 11:00
금요일(영양)오후 7:30 한어 청년부 주일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주일예배 오후 12:30 **이건창** 담임목사
주일 EM예배 오후 12: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화요일성경공부 오후 7:30

발렌시아 샘물교회

25222 Wiley Canyon RD, Santa Clarita, CA 91321
Tel. (661)219-5434 www.sammool.org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6:00
주일 3부 영아예배 오후 1:00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T
T.(818)363-5887 iccc.office1@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새벽예배(화-금) 새벽 6:00 **박성호** 담임목사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교육부(월-토) 오전 11:00
수요예배 저녁 7:00

베이커스필드 ANC은누리교회

6700 Schirra Ct, Bakersfield, CA 93313
T. (661) 831-2262 / onnuribk.com/anc

주일예배 오전 11:00 **송금관** 담임목사
주일 성경공부 풍요로운 삶 오전 9:30
화요일 3:30 기도회 매달 둘째주 오전 10:30 목요일 TEE 영육 Zoom 오후 7:30
목요일 거리전도 오전 10:00 한인타운 토요일 새벽기도회 오전 6:00

평강교회

606 El Centro St., South Pasadena, CA 91030
T. (213)393-9136 http://pyongkang.com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한국어)
주일예배 2부 오전 10:15 (한국어, 스페어니쉬)
주일예배 3부 오후 12:15 (한국어, 교육부)
새벽예배(월-토) 새벽 6:00
(7175 W Oquendo Rd, Las Vegas, NV 89113)

라스베가스 순복음교회

9525 W Maule Ave, Las Vegas, NV 89148
T. (702) 453-1223 / www.fglvchurch.com/

주일예배 1부 오전 9:45 **임인철** 담임목사
주일예배 2부 오전 11:30
유초등부 주일 오전 11:30 수요예배 저녁 7:30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3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라스베가스 중앙교회

7570 Peace Way, Las Vegas, NV 89147
T. (702) 489-2999 / www.joonganglv.org

주일예배 1부 오전 11:00 **송상용** 담임목사
주일예배 2부 오후 2: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라스베가스 즐거운 제자교회

101 S Rancho Dr, Las Vegas, NV 89106
T. (702) 378-9828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이정환** 담임목사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성경기도회 오후 7: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7:00 E.lvkchurch@gmail.com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
예수님의 제자되어 성령님의 열매 맺는 교회

622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252-0077 / lvkcc.org/lvkcc/index.php

장년예배 1부 오전 9: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
2부 오전 11:00
중보기도회 수요일 오전 11:30
금요찬양예배 금요일 오후 7:00

라스베가스 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 E. drjho@hotmail.com

주일 1부 예배 11:30 AM
주일 2부 예배 1:30 PM
수요예배 7:00 PM
새벽기도회 화-토 5:50 AM

라스베가스 우리종은장로교회

8425 W. Windmill Ln. Las Vegas, NV 89113
T. (702)685-2212, woorijoeunchurch.com

주일 1부 예배 오전 9시 세신자 성경공부 주일 오후 1시
주일 2부 예배 오전 10:45 제자훈련 주일 오후 1시
주일학교 오전 11시 금요일예배 저녁 7시
Youth 오전 10:45, 오후 1시 새벽예배 오전 6시(화-금)

라운드락교회

2011 Cade Lk, Round Rock, TX 78664
T.(512)228-1934 https://www.rkpc.net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크리스천 비즈니스

CHRISTIAN BUSINESS

학생 모 집

캘리포니아 두란노대학교
B.th, Th.M, M.Div, D.Min, Th.D coafs-07-388665

캘리포니아 전체에서 **신학박사 인가 대학은 3곳**뿐입니다.

- 학교운영하실 분 \$7만불 (신학철학책 1만권 포함)
- 나성중부교회 김 호 박사 / 캘리포니아 디렉터

213-507-1933



아이넥스 프로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213-383-1230
2811 Leeward Ave, LA, CA 90005

헤어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신가요?

- * 헤어컷 배워 신고하실 분(무료)클래스
-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드레서가 되고 싶은 분
-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아시아미용선수권 우승
·아시아미용가협회수석강사
·영국 알란 Beauty College 한국강사
·독일 슈베츠코프(Beauty College) 초대 한국강사
·한국국가대표 심사위원 트레이너 역임

FOP SERVICE, INC.
PLUMBING License# 1139798

업체 최저가격
드레인 클린 \$40부터

213-434-8947

OUR SERVICES:

- Water Leaks & Pipe Clogs
- Drain & Sewer Cleaning
- Pipe Repair & Replacement
- Water Heaters
- Toilets, Sinks, Disposal

치질! 수술없이 시술로도 가능한가요?

치질증상으로 항문소양증, 항문과 꼬리뼈 통증 출혈로 앉기도 두렵고 매번 화장실 가는것도 무섭다. **정력강화**

배변은 숙변 제거와 먹으면서 체중 줄고 입 전체 부종 빠지는 약 처방 \$70

초스피드 다이어트 1달 - 7~25 lbs · 손목 터널 증후군 침치료 가능합니다

3대째 가업 **영선한의원 213.380.7800**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A, CA 90020

각종모임 주문환영 (교회, 골프모임, 동호회...)

고기, 김치만두, 찹쌀 오방떡, 술빵 새우만두 떡갈비 정식 떡갈비 김밥

어마의 정성이 한 가득 ~ 이리 주문해 주세요!

Cooking Mom T. 213.378.8530
3660 Wilshire Blvd. #120 LA, CA 90010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lga.com

시니어 센터 점심 도시락 배급 재개

LA한인타운 시니어 커뮤니티 센터(회장 이현옥)가 5월 11일(월) 지난 1월 예산 부족으로 중단되었던 점심 도시락 배급을 재개했다.

지역 노인들과 주민들은 아침 일찍부터 시니어센터 앞에 줄을 서서 접수하고, 도시락을 받았다.

점심 도시락은 월-금요일까지 오전 11시에 한식 메뉴로 100개씩 배급하며, 등록은 당분간 계속 받는다.

이번 사업은 마크 곤잘레스 캘리포니아 주하원의원(54지구)의 주선으로 LA 메트로 YMCA와 연결되며 성사됐고, 연간 약 20만 달



LA한인타운 시니어 센터가 점심 도시락 배급을 재개했다. 왼쪽 이현옥 회장이 도시락을 배급하고 있다. © 시니어 센터

러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다.
웹사이트 : <https://ksccia.com/>

이메일 : kssc965@gmail.com
문의: 213 387 7733

손봉호 박사, 그리스도인의 윤리 세미나

미주복음방송이 손봉호 박사(서울대 명예교수·고신대 석좌교수)를 초청하여, '그리스도인의 윤리'를 주제로 한 특별 강연과 공개대담을 진행한다.

이 세미나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윤리적으로 살아낼 수 있는지를 탐구한다. 강연 후 미주복음방송의 대담 프로그램 'GBC 초대석' 공개방송을 통해, 심층 대담 및 현장 청중 질의응답이 이어진다.

5월 17일(주일) 오후 1시 30분에는 토랜스제일장로교회(고창현 목사)에서 '나눔 윤리' 특강이 진행된다.

손봉호 박사 초청 특별 세미나

이웃에게 부끄럽지 않은 교회

세계적 기독교 윤리학자 손봉호 박사, '그리스도인의 윤리'를 주제로 이민국교회에 온다!

서울대 명예교수 · 고신대 석좌교수
·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신학 석사
· 대한민국 연세대학교 자원봉사(봉사학 석사)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교수 역임
· 1987년 기독교윤리실용연구소 설립
· 저서: 『나눔 부흥사』, 『교회는 무엇인가』, 『영적 리더십』, 『영적 리더십』

강사: 손봉호 박사

일시 2026년 5월 18일 (월) 오전 10시 - 오후 12시

장소 미주복음방송 공개홀 2641 W. La Palma Ave, Anaheim, CA 92801

참가비 무료 (선착순)

등록 포스터 QR코드 및 104번 미주복음방송 웹사이트 세미나 배너 클릭 www.kgbc.com

문의 714-484-1190

손봉호 박사 '이웃에게 부끄럽지 않은 교회' 세미나
일시: 5월 18일(월) 오전 10시-정오
장소: 미주복음방송 공개홀 (2641 W. La Palma Ave., Anaheim, CA 92801)

1부: 주제 강연 (오전 10시-11시)
2부: GBC 초대석 공개방송 (오전 11시-정오 12시, 현장 질의 포함)
참가비: 무료 (점심 제공)
등록: kgbc.com 세미나 배너 클릭
문의: 미주복음방송 714-484-1190

OC 지역 사회를 위한 위로 음악회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 GMI 청소년 오케스트라(지휘 정승재 교수)와 OC 한인회가 공동 주최하는 'OC 지역 사회를 위한 위로 음악회'가 오는 5월 16일(토) 오후 4시, OC 한인회관에서 막을 올린다.

이번 음악회는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감동의 무대'라는 슬로건 아래, 지역 사회의 뿌리인 어

르신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날 공연에서는 정승재 교수의 지휘로 클래식과 가요, 우리 민요 등 풍성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일시: 5월 16일(토) 오후 4시
장소: OC 한인회관 (9876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문의: 714-318-2085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감동의 무대! 위로 음악회 초대합니다!

OC 지역 사회를 위한 위로 음악회

일시: 5월 16일 (토) 오후 4시
장소: OC 한인회관
9876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주최: GMI Youth Orchestra, OC 한인회

ANC 온누리교회, 충현선교교회 장학생 모집

ANC 온누리교회(김태형 목사)가 2026-2027학년도 장학생을 5월 31일 자정까지 모집한다. 지원서는 장학회 웹사이트(www.ancsf.us)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접수할 수 있다.

ANC 장학금은 학부 및 커뮤니티 칼리지 학생에게 1,500달러, 대학원 및 신학대학원 학생에게는 2,000달러가 지급된다. 연령 기준은 학부 과정의 경우 30세 이하, 대학원 과정은 40세 이하.

충현선교교회 장학부에서는 5월 30일까지 장학생을 모집한다. 충현선교교회 장학금 신청 정보는 충현선교교회 웹사이트 - 교회 소식에서 '장학생' 검색. 문의: scholarship@choonghyun.org

이래도 생명보험과 개인은퇴연금을 아는 사람에게 대강 가입하시겠습니까?

데이터로 보는 캘리포니아 보험

- ✓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되는 생명보험과 개인은퇴연금 회사(캐리어)는 - 약 270~300여 개 사
- ✓ 회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상품의 수 - 생명보험 : 5~15개 - 개인은퇴연금 : 3~10개
- ✓ 한 상품당 선택할 수 있는 라이더(특약)의 수 - 생명보험 : 보통 5~15개 - 개인은퇴연금 : 보통 3~8개
- ✓ 평균적으로 동시에 선택하는 라이더 수 - 2~5개 정도
- ✓ 여러분에게 맞는 보험을 선택 할 수 있는 확률은? - "수십만 대 일 ~ 수천만 대 일" - 캘리포니아보험국 '2024 MARKET SHARE REPORT' -

“보험 선택은 수백만 가지 중 하나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상황을 기준으로 1~3개로 압축하는 과정입니다.”

여러 상품에 대해 알고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Agent 신정호 (Lic# 4462712)

- Cell : 949-522-0778
- jeongho.shin@bridgeoneins.com
- Office : 562-222-8877
- Fax : 714-636-0023
- 6767 Katella Ave, Cypress, CA 90630



유튜브 채널
새비이코노미



에이전트 모집중 재정 전문가로 함께 성장할 인재를 찾습니다.

강준민 칼럼

깊은 상처가 생수의 우물이 됩니다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 부모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를 낳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삶에는 깊은 상처들이 담겨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 어려움을 홀로 견뎌낸 밤의 고독, 자녀를 위해 삼켜야 했던 수많은 감정들이 바로 그 상처 속에 담겨 있습니다. 상처를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상처는 신비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싫어하는 상처가 생수의 우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깊은 상처를 통해 깊은 우물을 파십니다.

우물은 아무 데서나 생기지 않습니다. 우물은 깊이 파인 자리에 생깁니다. 맑은 생수를 얻기 위해서는 땅속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제가 아는 한 선교사님의 사역은 선교지를 방문하여 우물을 파 주는 일입니다. 지역마다 다르지만, 맑은 생수를 얻기 위해서는 80m에서 150m까지 깊이 땅을 파야 합니다. 깊은 땅 속에서 맑은 생수를 얻게 됩니다. 깊이 땅을 판다는 것은, 깊은 상처를 감당하는 일과도 같습니다. 생수를 제공해

주는 우물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우물은 깊이를 요구합니다. 생수는 얇은 곳에서 얻을 수 없습니다. 깊이 내려갈수록 더 맑은 생수를 얻게 됩니다. 깊은 상처를 통해 깊은 생수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얇은 만남이 아니라 깊은 만남을 원하십니다.

둘째, 우물은 기다림을 필요로 합니다. 우물은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깊은 곳에 있는 우물을 파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또한 생수를 담은 우물을 만드는 일에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 값없이 깊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고귀한 것은 시간을 요구 합니다. 신앙의 깊이는 오랜 시간 속에서 형성됩니다.

셋째, 우물은 나눔을 전제로 합니다. 우물은 혼자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물이 생기면 동네 전체가 함께 사용합니다. 학교에 우물을 파면 모든 학생이 생수를 마시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물은 만남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우물에서 리브가를 만났고, 야곱은 우물에서 라헬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우물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넷째, 우물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우물은 깊은 땅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물을 얻기 위해서는 깊이 땅을 파야 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 어둠 속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십니다. 흑암 중에 보화를 감추어 두십니다(사 45:3).

남미에 있는 이과수 폭포는 세계에서 가장 웅장한 폭포 중 하나입니다. 이과수 폭포를 안내해 주신 분의 말이 제 가슴에 깊은 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과수 폭포는 지진 때문에 생긴 땅의 균열이 만들어 낸 작품입니다. 곧 깊은 상처로 인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지각이 갈라지고, 땅이 내려앉고, 오랜 시간 물이 틈을 따라 흐르면서 오늘의 거대한 폭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물의 낙하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는 깊이 파인 상처의 지형이 있습니다. 지진은 땅을 무너뜨렸습니다. 동시에 새로운 물길을 열었습니다.

상처의 깊이가 아름다운 폭포를 만들어 냅니다. 상처가 깊을수록 물의 낙차는 커집니다. 낙차가 없는 곳에는 폭포가 없습니다. 깊이 파인 자리에서만 물은 떨어지고, 소리는 울리며, 생명은 퍼집니다. 깊은 상처가 은혜의 높이를 만듭니다. 폭포에서 물이 떨어지면 높이와 깊이 사이의 차이가 필요합니다. 상처는 그 차이를 만들어 냅니다. 상처가 깊을수록,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은혜의 낙차도 커집니다.

우리에게 깊은 생수를 선물해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깊은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그 상처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우물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으리라"(사 12:3).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박히셨을 때 로마 군인이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것이 피와 물입니다(요 19:34). 그

생수는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생수이며, 보혈로 우리를 대속하시는 생수이며, 성령으로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는 생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류 역사상 가장 깊은 상처였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에서 가장 큰 은혜가 흘러나왔습니다.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는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깊은 곳에 우물이 되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사랑, 우리가 받은 풍성한 은혜, 우리가 살아가는 힘은 누군가의 상처에서 흘러나온 것입니다.

십자가는 가장 깊은 상처가 영광이 되는 자리입니다. 죽음이 생명이 되는 자리입니다. 저주가 축복이 되는 자리입니다. 가난이 부요가 되는 자리입니다. 절망이 소망이 되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마시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상처도 누군가를 살리는 생수의 우물이 될 것입니다.



진유철 칼럼

두 가지 반응



진유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영적인 낯설음과 충격 앞에서 인간은 결코 중립 지대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상반된 반응으로 나뉘어졌는데, 첫 번째의 반응은 거부와 저항입니다. 출애굽 할 때 열 가지 재앙이라는 하나님 역사 앞에서 애굽의 왕 바로는 마음을 완악하게 하며 거부하였습니다. 그는 하

나님의 능력을 보았으면서도 자신의 왕국에 대한 자기중심성의 마음 때문에 끝까지 저항하다가 홍해바다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바리새인들도 눈앞에서 맹인이 눈을 뜨며 병자가 낫는 예수님의 능력이 증거 되는 데도 자신의 전통과 기득권이라는 틀에 갇혀 '바알세불의 힘을 빌렸다'며 오히려 정죄의 칼날을 세우고 거부했습니다. 오늘날도 누구든지 자기에게 집중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역사라 할지라도 거부하고 저항하게 됩니다. 또 두려움도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하고 저항하게 합니다.

사실 평소에는 인식을 잘 못하더라도 두려움으로 행한 것은 영적인 역사와 함께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직 혼을 움직입니다. 열왕기상18장에서 엘리야 선지자는 850명의 바알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대결을 벌여 하늘의 불이 임하는 승리를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19장에서는 두려움에 사

로잡히니 도망치다가 로렘나무 아래에 앉아 죽기를 원합니다. 이유는 왕비 이세벨의 반드시 죽이겠다는 위협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딤후1:7)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역사할 때 전폭적인 신뢰와 겸손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가질 것이라는 천사의 말을 듣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인데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로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겸손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베드로도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해 지치고 낙심되었을 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예수님의 비상식적인 말씀을 믿음으로 수용하였습니

다.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권위 있는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였더니 '사람을 낚는 어부'로의 새 역사를 이루게 된 것이었습니다.

지난주일 온 세대가 함께 성찬예배를 드렸는데, 특별히 어린이주일, 신앙의 핵심인 가족 중심의 1,2,3부 예배를 드렸습니다. 영아부와 유치부 어린이들도 1시간 30분의 예배를 무난히 잘 드림을 보고 다들 놀랐습니다. 물론 어린 자녀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불편하고 힘들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우리 자녀들에게는 최고의 교육이 되었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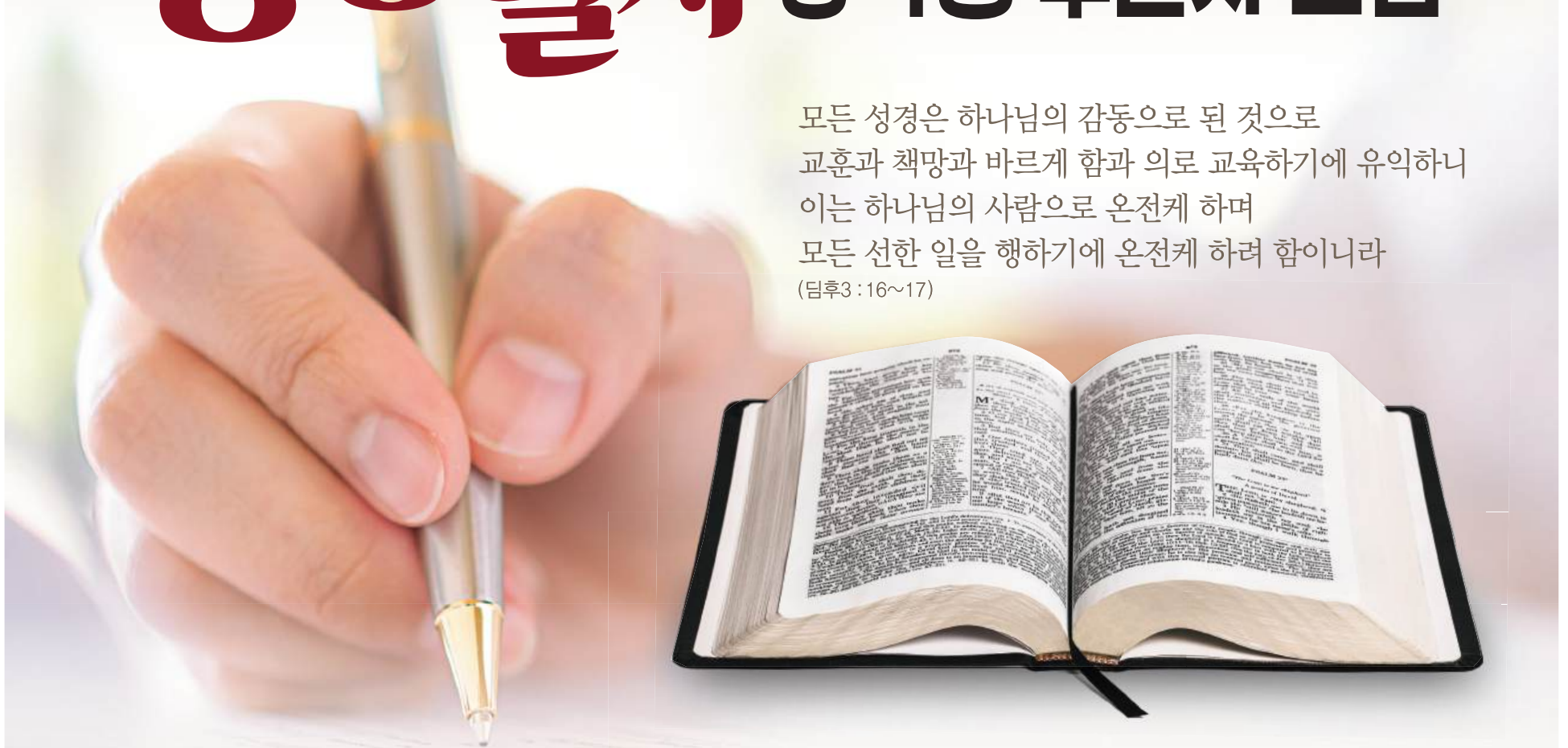
어버이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내 입장, 내 생각을 앞세우거나 두려움으로 마음을 닫을 것인가, 아니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겸손히 수용할 것인가에 따라 우리 인생의 페이지는 전혀 다르게 쓰이는 것입니다. 지금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살롬!

2026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Advertisement for 2026 US Christian University Fair. Includes logos and details for Talbot School of Theology,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California State University, World Mission University, Evangelical University, Gateway Seminary, Azusa Pacific Universit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and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Lists various programs like M.Div., M.A., D.Min., and M.F.A., along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each institution.

성경 필사 **제3기** 장학생 후원자 모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딤후3:16~17)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청소년과 청년들은 세상의 수많은 미디어와 자극적인 콘텐츠 속에서 마음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방향을 잃고 흔들리는 시대 가운데, 다음 세대가 다시 말씀 앞에 서도록 돕는 일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거룩한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위해 미주 기독교일보는 올해도 신약성경 6권 필사 장학생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마태복음에서 로마서까지, 말씀 한 글자 한 글자를 써 내려가며 그들의 생각과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돕는 프로젝트입니다.

올해는 특별히 캘리포니아 지역 고등학생과 대학생,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자녀들까지 총 34명의 장학생이 선정되어 말씀 필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글을 적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로 인생의 방향을 세우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귀한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정에는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 그리고 후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 ★ 장학생 한 명을 세우는 것은 한 인생을 세우는 일입니다.
- ★ 말씀을 붙잡은 다음 세대는 교회를, 가정을, 이 땅의 미래를 일으킵니다.

이 귀한 34명의 장학생들이 흔들림 없이 말씀 안에서 걸어가도록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주십시오. 그리고 가능한 분들은 이들에게 전달될 장학금 후원자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결단이 다음 세대에게는 한평생 잊지 못할 은혜가 됩니다. 이들의 손끝에서 써 내려가는 말씀 한 줄 한 줄이 장차 이들을 세우는 능력과 생명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여러분의 귀한 참여를 기다립니다. - 감사합니다.



지난 1기와 2기 장학생들이 고백한 은혜의 이야기

- “필사하는 동안 제 삶이 변했어요.”
-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제게 열려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서서히, 저는 제가 붙들고 있던 분노와 원망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 “나는 성경 필사를 통해 희망을 품게 되었고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 “제가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주님과과의 관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도와준 이 프로그램에 대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합니다.”
- “나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면서 영적인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 “하나님께서 성경과 말씀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셨는지 아는 것은 정말 귀중한 경험이었습니다.”

후원방법

Institute for Next Generations (기부금은 세금공제 서류 발급 가능)

CHASE BANK Account #: 611921385
Routing#: 322271627
Zelle: chdailyreporter@gmail.com

장학금 **1인당 \$1,000**

문의 : 기독교일보 213-434-1170
이메일 : chdailyreporter@gmail.com
주 소 : 3055 Wilshire Blvd. #480 LA, CA 90010

기독교일보



ING
Institute for Next Generations

주최 : 기독교일보

주관 : INSTITUTE FOR NEXT GENERATIONS

새라 김 칼럼

무슬림 신앙을 기념하는 두 개의 명절 지정 반대



새라 김 대표
TVNEXT.org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미 캘리포니아 일부 지역에서는 반미 구호를 외치는 시위와 행진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AB 2017은 단순히 명절 지정에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예를 들어, 과거 공립학교 교육 과정 변화 사례처럼 공교육과 다음 세대 교육에 친이슬람적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는 걱정이 있습니다.



2026년 4월 22일, Matt Haney 하원의원(민주당)이 발의한 캘리포니아 주 하원 발의안 AB 2017은 이슬람 종교를 기념하는 두 가지 명절을 캘리포니아주의 공식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에 크리스천들의 주목이 필요합니다. 이 발의안은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 6명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크리스천들이 주목하고 적극 반대해야 할 이유]

AB 2017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경계하라고 한 “누룩”과 같은 역할을 하며, 작은 틈이 결국 더 큰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성경은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법의 영향 아래, 역사적으로 세계 여러 지역에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있었다는 점을 우려하는

무엇보다 일부 기독교 단체와 전문가들은 유럽 사회의 변화 사례를 언급하며, 미국의 정교도 정신과 기독교적 가치관이 약화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AB 2017 발의안 요점
AB 2017 법안명
State Holidays: Eid 이드 알피트르(Eid al-Fitr), 이드 알아드하(Eid al-Adha)

현황: 2026년 4월 22일, Matt Haney 하원의원에 의해 발의되었으며, 위원회를 통과한 뒤 현재 세출위원회로 회부된 상태입니다.

AB 2017 발의안 주요 내용 요약

1. 이 법안은 이드 알피트르와 이드 알아드하를 주정부 공식 휴일 목록에 추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법 공휴일 지정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또한 커뮤니티 칼리지와 공립학교가 규정에 따라 해당일에 휴교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2. 이 법안은 ‘이드 알피트르’ 또는 ‘이드 알아드하’를 기념하기 위한 결석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결석 사유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관계자들에게 추가 의무가 발생할 경우, 이는 주정부가 의무화한 지역 프로그램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주정부 직원들은 규정에 따라 이드 알피트르(Eid al-Fitr) 또는 이드 알아드하(Eid al-Adha)에 해당하는 날, 연차·대체 휴가·개인 휴가 중 8시간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4. 주 의무 부과 위원회가 해당 법안에 재정적 부담이 수반된다고 판단할 경우, 관련 비용은 법적 규정에 따라 보상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결론적으로, AB 2017이 통과될 경우 어

른들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 세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게 됩니다. 특히 이 발의안은 재정적 부담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추가 공휴일 지정에 따른 행정·재정 부담, 그리고 학교 교육 현장에 특정 종교 사상이 유입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5년 힌두교의 ‘빛의 축제’가 주정부 공휴일로 지정된 것 역시 논란이 되었지만, 일부 기독교 단체들은 이번 이슬람 명절 지정 움직임이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고는 저희 단체뿐 아니라 여러 기독교 단체와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의 및 자세한 내용:

TVNEXT.org 공식 홈페이지
이메일: tvnext.org@gmail.com

강태광 칼럼

영종도 광야벤엘교회 이야기



강 태 광 목사
월드쉐어 USA

기(Earthing)에 몰두하며 바닷가를 찾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정성껏 섬기는 목사들과 그들의 사모들은 얼마 전에 은퇴했거나 곧 은퇴할 사람들이다. 그들은 만사를 제쳐두고 일주에 한 두번씩 바닷가를 찾는다.

광야벤엘교회를 섬기는 목회자와 사모 중에는 암환자도 있고, 이들에 한 번씩 투석해야 하는 환자도 있다. 광야벤엘교회는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예배드린다.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눈이 오면 눈을 맞고, 추우면 추운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모래사장에서 예배를 드린다.

지난 5월 7일, 제법 비가 세차게 내렸는데 아무도 동요하지 않고 예배를 드렸다. 목회자 사모들이 준비한 우산을 함께 쓰고 찬양과 기도를 드리고 설교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환우들은 대부분 건강도 좋고 희망도 있었다. 그래서 힘도 없고 기쁨도 없다. 광야벤엘교회에는 강단도 없고, 의자도 없고, 반주자도 없다.

반면에 광야벤엘교회에는 절박함과 사모

함이 풍성하고 간절한 기도, 새생명 탄생 이야기, 은혜받은 간증 그리고 믿음의 고백이 풍성하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풍성한 생명의 이야기가 광야벤엘교회의 자랑이다.

5월 7일 예배에서 지난 부활절(4월 7일)에 세례받은 한 성도가 간증했다. 암을 통해, 또 광야벤엘교회를 통해 만난 하나님을 간증했다. 그야말로 잘 나가던 인생이었다. 승승장구하던 남편이 덜컥 암 4기 진단을 받고 모든 것이 변했다. 절박한 마음으로 땅과 접촉(Earthing)하려고 바닷가에 왔다가 전도를 받고 천국과 접촉(Heavening)하고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만난 후 남편과 그녀의 소원이 달라졌다. 살려주셔도 감사하지만, 천국 가도 좋다. 살려주시면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되어 감사할 따름이다.

광야벤엘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가운데는 환우도 있다. 비슷한 처지의 환우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광야벤엘교회 예배에 초대도 한다. 중증환자인 그들은 예배 사회자로, 주보를 나눔이로, 간식 나눔이로 섬긴다. 인생

의 광야를 지나며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그들이 아름답다. 병도 얻고 몸도 쇠약해졌지만, 힘을 다해 주님을 섬긴다. 인생 광야를 지나며 발견한 사명이다.

모든 인생은 죽음을 앞두고 있다. 죽음과 상관없는 사람은 없다. 인류는 죽음을 연구하고 좋은 죽음을 추구해 왔다. 1415년에 출판된 <아르스 모리엔디(Ars Moriendi)>는 서양 문화 최초로 발간된 죽음 안내서다. 이 책은 <죽음의 기술(Art of Dying)>이라고 영역되어 큰 사랑을 받았다. ‘어떻게 행복하게 죽을까?’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마지막(Final) 과제다.

광야벤엘교회는 인생의 마지막 과제를 다룬다. 광야벤엘교회는 세상에 대한 미련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한 환우들에게 위로와 천국 소망을 전한다. 환우들은 외롭고 고통스러운 인생 광야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예배한다. 오늘도 절박하게 모래밭을 걷는 암환우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는 소망을 풍성히 누리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영종도 바닷가 모래사장에 특별한 교회가 세워졌다. 바닷가 모래사장에는 땅밟기(Earthing)의 효능을 의지하며 모래밭을 걷는 말기암환자와 중증 환우들이 있다. 그들은 절박한 맘으로 하루에 4~5시간씩 모래밭을 밟는다. 이런 환자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던 목사들과 사모들이 바닷가 모래밭에 교회를 세웠다. 환우들을 위해 특별하게 세워진 광야벤엘교회다.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를 잡듯 땅밟

SHALOM ACUPUNCTURE

살롬한의원

Diamond Bar 살롬한의원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환자의 치료를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1st Time Discount

50%

with Google Reviews

- ✔ **각종 보험 완비**
Comprehensive Insurance Coverage
- ✔ **다양한 임상경험**
A variety of Clinical Experience
- ✔ **체질 맞춤 보약, 알약**
Constitution-Customized Herbal Medicine
- ✔ **체열 사진촬영**
Thermal Imaging Photography

(909) 860-4260

cell: (213) 518-4635 / shalomacu.drkim@gmail.com

DR. JUNE KIM LAc

22640 Golden Springs Dr., STE B, Diamond Bar, CA 91765



TOP7 미스트롯4 Live in LA

윤태화

홍성윤

윤윤서

염유리

허찬미

길려원

이소나

멕시코 크루즈 선상콘서트



카탈리나섬 투어, 프라이빗 선상 공연
멕시코 엔세나다 - 마리아치 공연 & 민속춤
8월 24일(월)~28일(금), 4박 5일간
28일 금요일 오전 하선 예정, 얼리버드 이벤트 후 가격은 변경됩니다.

6월 5일까지
얼리버드 이벤트
미스트롯4
공연 티켓 증정
선착순 마감

\$899

인사이드

\$1079

오션뷰

\$1299

발코니

1인당/2인1실 기준 - 예약시 완납 Non Refundable, 4박5일 유람선 비용, 모든 세금(포트세, 정부세) 포함



여행의 명문 -
et ELITE TOU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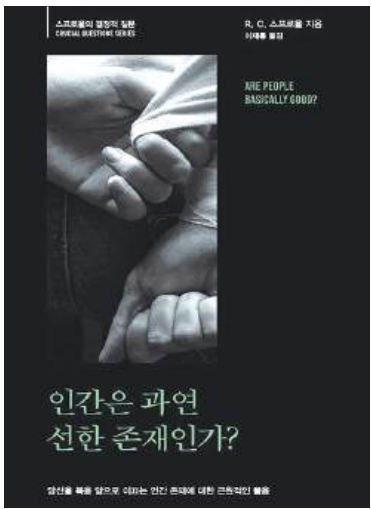
엘리트 투어

213·386·1818

745 S Oxford Ave. 1F, Los Angeles, CA 90005
www.EliteTourUS.com email: info@elitetourus.com

[크리스찬북뉴스 서평]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본 모습은

우리를 복음 앞으로 이끄는, 존재에 대한 근원적 물음



인간은 과연 선한 존재인가?

R. C. 스프로울 | 이제름 역
생명의말씀사 | 88쪽
10,000원

모든 문제를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
'인간 이해'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상대주의의
팽창으로
인간 존재의 의미가
흔들리는 시대다

낙태, 사형 제도,
생태계 파괴 등
오늘날의
뜨거운 화두들은
결국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 책은
인간 존재의 의미를
성경에 근거해
정립하고 싶은
이들에게
훌륭한 지침서가
되어 줄 것이다

‘인간은 과연 선한 존재인가?’ 이처럼 답하기 쉬운 질문이 있을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책을 쓸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성경은 명백하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롬 3:10)”라고 결론 내린다.

하지만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이 질문이 마냥 쉬운 질문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가 보기에 인면수심의 범죄자들이나 선량한 시민이 똑같이 악하다는 말인가?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악한 존재인가? 아니면 선한 존재인데 세상이 그렇게 만든 것인가? 선악의 기준은 누가 정하는가? 어느 정도 선하면 혹은 악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이나 심판을 받는 것인가? 만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함의 기준이 매우 까다롭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다는 평가를 받고 그분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쏟아지는 여러 질문에 적절히 답하려면, 성경 전반에 관한 탁월한 지식과 그것을 종합해 확신을 가지고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함이 필요하다. 특히 온갖 자유주의 사상 및 인본주의 사상에 물든 세상에서, 진실을 외치려면 말이다. R. C. 스프로울은 거기에 합당한 인물이고, 그가 개혁주의 교회 안에서 지금까지 헌신해 온 일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

R. C. 스프로울은 ‘결정적 질문(Crucial Questions)’이라는 시리즈를 통해 신학적으로 또 실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질문에 답해왔는데, 이번에 번역된 ‘Are People Basically Good?’에서도 스프로울의 탁월한 가르침을 맛볼 수 있다.

〈인간은 과연 선한 존재인가?〉로 번역된 이 책은 ‘당신을 복음 앞으로 이끄는 인간 존재에 대한 근원적 물음’에 답한다. 이 말을 잠시 생각해 보자. ‘인간 존재에 대한 근원적 물음’이 바로 ‘인간은 과연 선한 존재인가?’이고, 이것에 답을 찾으면 우리는 결국 ‘복음 앞으로’ 향하게 된다는 말이다. 여기서 인간은 선한 존

재가 아니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것이다.

인간의 본질적 문제인 악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대다수 종교는 선행으로 우리가 저지른 악행을 해결할 수 있다고 가르친다. 더 많은 수행, 더 많은 종교활동 참여, 더 많은 헌신과 봉사, 헌금 등으로 신을 감동시키면 신이 우리의 죄책을 감해준다는 것이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는 가톨릭에서도 여러 성스러운 예식에 참여하는 것을 강조하며, 그것이 우리 죄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가르친다. 죽어서 연옥에 빠진 조상들의 여죄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기까지 한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참 복음은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정죄하면서도 그 죄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의로운 방식을 제시하는데, 그 새로운 방식은 인간이 스스로 쌓아올린 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오히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의로움이다. 그 의로움을 옷입는 것으로 인간은 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선하지 않은 모든 인간의 죄책을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그분의 의로우신과 그분을 믿는 모든 인간의 무죄를 선언하셨다.

인간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선하심을 옷 입는다. ‘인간은 과연 선한 존재인가?’ 절대 그렇지 않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인간은 과연 선한 존재인가?’ 절대 그렇지 않다.

물론 생태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간도 여전히 악행을 저지르기도 있다. 하지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멈추지 않으시



▲R.C. 스프로울 박사. ©유튜브

고, 믿음과 그 열매인 순종으로 그리스도인은 신분에 걸맞은 상태로 날마다 빛의 자녀, 선한 인간이 되어 간다.

스프로울은 이 소책자에서 인간의 본질적 특징을 ‘하나님을 아는 일’을 통해 들여다 본다. 칼빈이 주장한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일’이 ‘사람을 아는 일’의 전제가 된다.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제대로 알려면 반드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어야, 그 형상대로 빛은 사람의 상태와 그 상태에서 부패한 현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고 알려준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면 알수록, 우리가 누구인지 아는 일이 더욱더 수월해진다. 또한 한 사람됨의 의미를 이해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더 깊은 통찰을 얻게 된다(17쪽).”

오늘날 하나님을 이해하는 관점이 무너지고 동시에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심각하게 왜곡되는 현실 속에서,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성경의 바른 관점으로 하나님과 인간을 보게 될 것이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지혜와 능력이 가득한 하나님의 복음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조정의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위원

■ 금주의 말씀묵상 | 김영희 권사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로과 같이
이웃 가까이서 그의 백성을 지금까지
영원까지 두르시리니라 시편 125:2



“Como Jerusalem
tiene montes
alrededor de ella,
Así Jehová alrededor
de su pueblo Desde ahora y para siempre.”
Salmo 125:2

출가산

모임은 “용수산”

고품격 한정식 코스 요리와
다양한 일품요리 전문 용수산

예약 문의

213.388.3042

950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TV 기독교일보 신앙간증

늘 새롭게

당신의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누는 시간!
미주 기독교일보 유튜브 신앙 간증 프로그램 “늘 새롭게”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당신의 간증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됩니다.
인생의 고비에서, 기도의 응답 속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눠주세요.
‘늘 새롭게’에 나오셔서 진솔하게 신앙간증하실 분이나
주위에 추천하실분이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신청 및 문의 : 기독교일보 213-739-0403/chdailya@gmail.com

* 미주기독교일보 유튜브에 많은 관심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유튜브에서 'CDTV 미주 기독교일보'를 검색하세요

[서성록, 한 점의 그림] 울리히 츠빙글리의 이코노클레즘

루터와 다소 달랐던 츠빙글리의 '교회 미술' 인식

참된 종교 추구하고자 주로 반대 각종 종교적 관습 철폐 위해 노력 신중한 절차 중시, 폭력에는 반대 공로주의 반대, 용기 있는 개혁가 예술 조예 깊었으나 이미지 부정 교회 회복 절실함 반영, 철저 주장 인문주의자, 세속 예술은 인정해 종교적 맥락 말씀 중심주의 배경

스위스의 종교개혁가 울리히 츠빙글리(Ulrich Zwingli, 1484-1531)가 교회 미술을 보는 시각은 마르틴 루터와 뚜렷이 대조된다.

마르틴 루터(Martin Luther, 1483-1546)가 성상을 '신앙교육의 도구'로 인정한 것은 그것을 '아디아포라(Adiaphora·가하지도 불가하지도 않은)'로 여겼기 때문이며, 츠빙글리는 예배의 순결성 회복을 위해 성경에 명시되지 않은 것을 배제했다. 말하자면 츠빙글리는 성화와 성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는 것에 회의적이었고, 불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츠빙글리는 성상, 미사, 성례 등 여러 주제에 대한 교리문답 형식의 글 『요약 기독교 입문서(The Short Christian Introduction, 1523)』에서 "이미지나 성상은 인간의 손으로 만든 것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하였다. 「발렌틴 콤파르에게 보낸 답변(Answer to Valentin Compar, 1525)」에선 이미지(성상)가 신앙을 돕지 못하며, 오히려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한다는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

츠빙글리가 교회 미술에 반대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로 중세 말기 가톨릭 교회에서 교회의 재건과 장식을 위해 상류층의 선행으로 기부 문화가 발달했고, 그러한 선행은 중세 업적주의의 일환으로 훗날 르네상스 시대 교회 내 시각예술 발전을 가져왔다.

교회 미술은 교회 특권층 내지 지도층의 경제적 이득과 권력 과시, 교회의 내적 부패와 연관돼 있었던 셈이다(정미현, '이미지와 성상 부정에 대한 츠빙글리 사상 다시 보기', 『한국조직신학논총』, 제43집, 2015, 149쪽).

종교개혁의 이코노클레즘(iconoclasm·성상파괴운동)은 엄청난 부를 축적한 종교권력에 대한 도전의 성격을 띠고 있었으므로, 교황권의 휘황찬란한 외양이 비천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고 종교개혁자들은 의문을 품게 됐다.

둘째, 예배 공간 개혁과 관련이 있다. 츠빙글리는 완강히 가톨릭의 청산을 밀어붙였는데, 초대교회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본격적인 예배

개혁에 나섰다.

당시에는 가톨릭 교회 안에 성인들 상을 놓고 조각에 기도하는 성인 숭배, 성인들의 유물을 잘 보관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는다는 미신까지 공공연히 교황청에 의해 장려됐다(한홍, 『종교개혁 히스토리』, 규장, 2017, 82-86쪽).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지닌 츠빙글리에게, 이런 풍습은 미신행위와 다를 바 없었다.

당시에는 가톨릭 성당을 개조해 개신교 예배당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성당을 전부 허물 수는 없었지만, 과도한 장식들 즉 성당의 촛대, 성인상, 그림, 성직자 예복, 십자가, 벽장식, 로즈 윈도우와 스테인드글라스를 차단해 신자들이 신비주의로 빠지는 것을 막으려 했다.

츠빙글리는 신자들을 하나님이나 성상과 화상, 다양한 의식 등으로 인도하는 이들을 '거짓 목자'로 불렀다(Ulrich Zwingli, Schriften 1, 공성철 역, 『츠빙글리 저작선집 1』, 연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4, 354쪽).

셋째, 츠빙글리가 성상 제거를 옹호한 이유는 성화와 성상이 우상숭배로 이어진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그는 심계명의 가르침에 따라 예배에 사용되는 모든 종교 예술품은 우상이 될 수 있다고 여기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종교적 이미지, 성상, 유물을 즉시 철거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츠빙글리는 가톨릭에서 말하는 성인들에 바치는 '둘리아(Dulia)', 마리아에게 바치는 '하이퍼둘리아(Hyperdulia)', 하나님께 드리는 '라

트리아(Latrai)'를 언급하면서 이중 '둘리아'와 '하이퍼둘리아'의 경우 성경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으며, 하나님만을 믿는다는 표시로 가장 귀한 것을 바치는 '라트리아'만이 적실성을 가질 뿐이라고 봤다(Ulrich Zwingli, Schriften 2, 『츠빙글리 저작선집 2』, 임걸 역, 연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8, 238-239쪽).

츠빙글리 이코노클레즘의 특징이라면, 창조주와 모든 피조물 사이의 절대적 구분에서 출발한다는 점이다. 하나님이 무로부터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교리는 초대교회 이후 굳건히 지켜졌으나 차츰 약화되고 심지어 부정됐다.

그에게 있어 인류의 심각한 죄는 하나님의 유일한 것을 피조물에게 돌리는 것으로 정의되는 '우상숭배'이다. 츠빙글리의 경우 종교개혁이란 우상숭배로부터 참되신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회복하는 운동이었다.

하나님은 불완전한 신뢰를 받지 않으시는 분이기에 때문에, 하나님과 그밖의 어떤 것을 신뢰하면서 해답을 찾을 수는 없다. 츠빙글리가 교회 내 이미지를 부정하는 것은 예술에 조예가 없어서가 아니라, 예배의 순수성을 회복하려는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츠빙글리의 일관된 교회 이미지에 관한 관점이 난폭한 사람들의 파괴 행위까지 제어하지는 못했던 것 같다. 성 베드로 교회 제단은 파괴됐고, 횡교와 비킹엔에서는 성상이 끌어내려졌다. 목조 예술품은 공개적으로 불태워졌고, 석조 조각품은 무거운 도구로 파괴됐다.

이런 광경을 지켜 보면서, 츠빙글리는 성상파괴운동이 때로는 폭력적으로 전개되는 것에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그는 평화롭고 이성적인 방법을 추구했지만, 때로는 그의 생각과 다르게 기존의 권위자들과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불가피하게 폭력이 동반되기도 했다.

그는 폭력이 결국 개혁의 진정한 목적을 훼손할 수 있다고 보았고, 따라서 협의와 설득을 통해 사회

적 합의를 이끌면서 점진적으로 변화를 끌어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츠빙글리는 성화상은 제거되어야 하지만, 성상을 철폐하는 것은 기증자나 교회 공동체의 결정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고, 난폭한 행동은 자제해야 한다고 설득하였다(On Image and the Mass, 1524).

또 그는 성상 철거가 '질서 있게' 추진되도록 노력을 기울였다. 츠빙글리가 시의회 관리와 감독 아래 성상 철거를 '질서 있게' 진행했다는 부분은 그의 개혁에서 매우 중요하다. 츠빙글리의 개혁은 제네바의 장 칼뱅을 포함한 개혁자들에게 시의회와 교회의 협력으로 개혁을 추진하는 '취리히 모델'을 제시했다. 이로써 성상 파괴가 대중의 폭력적 소요가 아닌, 공적 합의와 절차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선례를 남겼다.

이렇듯 츠빙글리가 이미지 사용을 거부한 데는 참된 종교를 추구하고자 했던 그의 신학이 자리한다. 특히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강조한 츠빙글리는 중세 경건의 기반이었던 의식적 전례와 종교적 관습을 묵과하기 어려웠다.

그는 전례에 의한 경건을 참된 종교를 대체하는 요인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으나, 철거에 대해서는 절차의 신중성을 잊지 않았다. 츠빙글리는 열렬히 교회 미술을 반대한 종교개혁가로 성상 문제를 공론화해 성상의 폐해를 알려준 측면도 있지만, 당시 종교 권력의 횡포와 만연한 공로주의에 침묵하지 않은 용기 있는 개혁가이기도 했다.



▲1524년 스위스 취리히에서 일어난 성상파괴 운동 그림. 목조 작품은 거리에서 불탔고, 석조 조각은 파괴됐다.

서성록 명예교수



ADU 전문

리|모|델|링

**디자인
설계
시공**

**Solar
&
Roof**

**집수리
일체**

Kitchen & Bath 완전 리모델링

- 1~2명이 일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각 분야별로 2~3명이 조를 이루어 Crew가 일을 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고 빠릅니다.**
- Kitchen팀, Bathroom팀, ADU 전문, Roofing팀, Solar 설치팀, 마루시공팀, Carpentry팀, 전기팀, Plumbing팀, Window팀, Concrete Stucco팀, 철공팀, 페인팅전문팀, 디자인설계팀
(하청없이 완전 전문가 Crew로 구성)
- Kitchen 완전 리모델링 4-5일 **완성**
- Bathroom 완전 리모델링 5-6일 **완성**

www.kurbanbuilders.com 실제 작업 사진 보러가기

www.en.kurbanlike.com



“26년 건축의 달인과 지금 바로 상담해 보세요”



K-Urban Builders
CSLB # 854389

213-310-1800

LA 2621 W. Olympic Blvd. # 205
Los Angeles, CA 90006

213-798-2200

OC 6904 Oran Cir.
Buena Park, CA 90621

북한자유주간 정책포럼 “북핵 · 인권 해법은 원코리아”

제23회 북한자유주간은 주요 일정으로 4월 29일 워싱턴 D.C. 연방의회 의사당 인근 캐논 하우스 오피스 빌딩에서 ‘국제 원코리아 포럼: 캐피톨 정책포럼’(International Forum on One Korea: Capitol Policy Forum)이 열렸다. ‘자유롭고 통일된 한국 정책의 최종 목표’(Free and Unified Korea Policy Endgame)를 주제로 진행된 이날 포럼에서는 북한 인권과 북핵 문제의 근본 해법을 ‘자유롭고 통일된 한국’에서 찾아야 한다는 메시지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발표자들은 북한 정권이 내세우는 이른바 ‘적대적 두 국가론’이 한민족 공동체성과 통일의 당위성을 부정하는 반통일적 노선이라고 보고, 이에 맞설 대안은 분단의 관리가 아니라 ‘원코리아’ 비전의 회복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날 논의는 북한 핵 문제를 안보 현안으로만 다루는 접근의 한계를 지적하고,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 외부 정보 유입, 한미동맹의 가치 기반, 한국 시민사회의 통일운동을 하나의 전략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모아졌다.

포럼은 ‘자유롭고 통일된 한국 정책의 최종 목표’(Free and Unified Korea Policy Endgame)를 주제로 열렸으며, 글로벌피스재단(Global Peace Foundation), 통일을실천하는사람들(Action for Korea United), 디펜스포럼재단(Defense Forum Foundation), 한미통일연합(Alliance for Korea United, USA), 원코리아재단(One Korea Foundation)이 공동 주최했다.

북핵과 인권은 “동전의 양면”

첫 번째 세션은 북한자유주간에 참여한 탈북민 대표단이 맡아 진행했다. ‘자유롭고 통일된 한국을 위한 탈북민의 목소리’를 주제로 열린 이 세션에서는 수잔 솔티 디펜스포럼재단 대표가 사회를 맡고, 허강일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김지영 자유북한방송 대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김가영 방송인 겸 안보강사가 패널로 나섰다. 이들은 북한 내부에서 직접 경험한 체제의 실상과 주민 통제, 정보 차단, 인권 유린의 현실을 증언하며, 자유통일 논의에서 탈북민들의 목소리가 핵심 증언이자 정책적 근거가 돼야 한다는 점을 부각했다.

두 번째 세션은 ‘자유롭고 통일된 한국을 위한 한미동맹’을 주제



제23회 북한자유주간 일정 가운데 하나로 4월 29일 워싱턴 D.C. 캐논 하우스 오피스 빌딩에서 정책포럼이 열렸다. 이날 포럼에서는 원코리아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기독교일보

로 진행됐다. 올리비아 이노스 허드슨연구소 선임연구원이 사회를 맡고, 제임스 P. 플린 글로벌피스재단 국제회장, 케네스 배 목사, 이현승 글로벌피스재단 북한 이니셔티브 수석전략가, 유남식 한미통일연합 USA 청년프로그램 디렉터가 패널로 참여했다.

이노스 연구원은 세션을 열며 한미동맹을 군사·안보 협력으로만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워싱턴과 서울을 묶는 힘은 북한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뿐 아니라 자유, 인권, 민주주의라는 공유 가치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노스 연구원은 북한의 핵 개발과 인권 유린이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동전의 양면”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북한 정권이 주민 통제와 강제노동, 정치적 억압을 통해 체제를 유지하고, 그 구조 속에서 핵·미사일 프로그램도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대북정책이 안보와 인권을 분리해 다루는 방식에서 벗어나, 두 문제를 함께 다루는 포괄적 접근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제임스 P. 플린 회장도 같은 문제 의식을 이어갔다. 그는 한반도 분단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남아 있는 가장 중대한 미해결 과제 중 하나로 규정하고, 분단이 핵 위협과 체계적 인권 유린, 지역 불안정을 동시에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플린 회장은 북한 문제가 단순한 지정학적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 북한 주민 2,600만 명이 기본적인 자유와 인간 존엄을 박탈당한 현실이 모든 전략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최근 정책 담론이 억지, 군비통제, 이른바 ‘차가운 평화’에 머무르는 경향을 비판하며, 이

는 해결이 아니라 분단 현실에 적응하는 것에 가깝다고 했다.

그는 통일을 흡수나 봉기의 결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자유와 인간 존엄, 공유된 정체성 위에 세워지는 새로운 국가 건설로 통일을 바라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플린 회장은 이 비전이 있을 때 통일은 추상적 구호가 아니라 시민을 움직이고 국제사회를 설득할 수 있는 공동의 목표가 된다고 했다.

특히 그는 북한이 통일을 포기하고, 한국 내 일부 정책 흐름도 두 국가 현실을 정상화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플린 회장은 이런 흐름이 분단을 영구화할 수 있다며, 자유롭고 통일된 한국을 명확한 정책 목표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 없는 평화는 평화가 아니다”

케네스 배목사는 북한 내부의 경제난과 정보 차단, 국경 통제의 심각성을 전했다. 그는 북한 주민들의 고통이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며, 최근 북한 내부에서는 환율과 식량 가격이 급등하고 주민들의 탈출 통로도 사실상 막혀 있다고 설명했다.

배목사는 국경 봉쇄와 밀수 차단, 외부 정보 유입 축소가 주민들을 더욱 절망적인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이 핵 무기와 미사일 능력을 키우는 사이 주민들은 생존의 위기에 놓여 있다며, 대북 정보 유입은 단순한 정치적 수단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이 자유를 인식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핵심 통로라고 했다.

그는 VOA와 RFA 등 대북 방송이 위축되는 상황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미국 정부나 특정 국가의 예산에만 의존하지 않고, 민간 차원

의 지속 가능한 정보 유입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배목사는 한국 정부와 사회 안에서 남북을 사실상 별도 국가로 굳히려는 흐름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분단 상태를 평화로 포장하더라도 북한 주민 2,600만 명이 자유와 인권 밖에 남겨진다면 그것은 진정한 평화라 될 수 없다는 취지다.

이어 발표에 나선 이현승 전략가는 미국의 대북정책이 그동안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관리하는 데 머물렀다고 비판했다. 그는 북한 정권에 핵무기는 단순한 협상 카드가 아니라 체제 생존 수단이라며, 김정은 정권이 이를 쉽게 포기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그는 군비통제 논의가 현실적 대안처럼 제시되지만, 북한 같은 폐쇄 체제에서는 검증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군비통제 합의가 성립하려면 신뢰와 투명성이 전제돼야 하는데, 북한은 그런 수준의 접근과 사찰을 허용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이 전략가는 대북정책의 중심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북한의 행동 변화를 기다리는 데서 멈출 것이 아니라, 정권의 구조 자체를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북한 주민들이 진실을 알 수 있도록 정보 유입을 확대하고, 정교한 금융 압박을 가하며, 인권 문제를 주변 의제가 아닌 안보 의제의 중심에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군비통제나 비핵화 협상이 일시적 긴장 완화 효과를 줄 수는 있어도 한반도 문제의 근본 해법은 될 수 없다고 했다. 자유롭고 민주적인 통일 한국만이 북한의 핵 위협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북한

주민들을 억압에서 해방시키며, 신뢰 가능한 사회를 세울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다.

두번째 세션 마지막 발제에 나선 유남식 디렉터는 한인 디아스포라와 청년세대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1919년 3·1운동 당시 미국 내 한인들이 제1차 한인회의를 열고 한국의 자결권을 세계에 알렸던 역사를 언급하며, 오늘의 한인 디아스포라 역시 자유롭고 통일된 한국을 위한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했다. 유 디렉터는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미국까지 위협하는 국제 안보 문제인 동시에, 북한 주민 2,500만 명 이상이 정치범수용소, 이동의 자유 제한, 표현의 자유 제한, 정보 접근 차단 속에 살아가는 인도주의 위기라고 설명했다.

그는 통일이 단순한 정치 의제가 아니라 분단된 민족을 치유하고 북한 주민들을 인권 유린에서 해방시키는 도덕적 과제라고 했다. 또 현재 한미통일연합 USA에서 ‘코리아 드림 캠퍼스 캠페인’을 이끌고 있다며, 스탠퍼드, UC버클리, UCLA, 예모리, 컬럼비아, 뉴욕대, 워싱턴대 등 여러 대학에서 청년들이 한반도 문제를 자기 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유 디렉터는 이 운동이 단순한 행사 개최가 아니라 청년 주도의 전국적 연대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했다. 법학, 정책, 인권, 국제관계, 아시아학 등 다양한 분야의 학생들이 자유통일 한국을 위한 미래 리더로 세워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로버트 조셉 “인권을 뒤로 미룬 대북정책은 실패”

오찬 세션에서는 로버트 조셉 전 국무차관이 기조연설에 나섰다. 이날 전체 논의 가운데 가장 무게 있게 제시된 메시지 중 하나는 조셉 전 차관의 발언이었다.

조셉 전 차관은 한반도의 인위적 분단이 1945년 이후 미국의 국가 안보에도 지속적인 위협을 만들어 왔으며, 자유롭고 통일된 한국이 북한의 안보 위협과 대규모 인권범죄를 끝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중요한 해법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과 한국의 정책 문서에서 통일을 전략적 최종 목표로 공식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비핵화는 중요한 과제지만, 그 자체가 최종 목표가 될 수는 없으며 자유롭고 통일된 한국이라는 더 큰 전략 틀 안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대원 기자

[다음호에 이어서 계속]

문선영의 머니토크

생명보험을 어뉴이티로 바꿔서 매달 찾아 쓰고 싶어요

질문 문선영씨 안녕하세요. 저는 뉴저지에 거주하는 72세 미스터 한입니다. 한국에서 와이프가 세상을 떠난 뒤 홀어머니와 아들 둘을 데리고 39세에 미국으로 와서 살았습니다. 저는 하는 일이 특성상 캐나다로 왔다갔다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을 저희 어머니가 다 키웠다고 봐야겠죠. 고생만 많이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일반 하다 보니, 저는 3년 전에 은퇴를 했고 벌써 어느덧 72세이고, 아들들은 다 커서 한명은 미국 군인이고 한명은 한국으로 돌아와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둘 다 모두가 정을 꾸리고 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문선영씨 유튜브를 보면서 처음으로 돈에 대해서 은퇴 자금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무척 재미있고 유익합니다. 아주 귀우면서도 정확하게 설명해 주셔서 특히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401k 같은 것은 없고 다니던 직장에서 펜션이 있어서 한달에 1800불씩이 나옵니다. 여기에 소액연금으로 3780불이 나오니까 한달에 5,580불인데 제가 어머니님 돌아가시기 전에 집을 하나 샀습니다. 어머니님 평생 아파트에서만 지내시는게 죄송해서 말년에 평생 소원인 어머니 집을 하나 사드렸는데 얼마 살지도 못하고 돌아가셨고 지금 그 집 모기지 페이먼트가 한달에 3,200 정도 됩니다. 5,580불 정도 받아서 세금 내고 여기에 모기지 내고 하면 생활이 좀 빠듯합니다. 집을 팔고 싶지 않은 이유는 집이 너무 편하고 어머니와 추억때문에 저는 계속 여기에 살고 싶습니다. 군인인 아들이 샌디에고 사는데 저에게 오라고 하는데 저는 뉴저지가 게고향 같아서 여기가 좋습니다. 아들이 자주 옮겨다니니까 그것도 저는 싫고 폐 끼치는 것도 싫습니다. 제가 생명보험을 미국오자마자 애들을 위해서 하나 들어놓은 것이 있는데 얼마전에 서아 찾아 보니까 사망하면 29만불이고 지금 취소해도 29만불이 나온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29만불은 별로 필요한 돈도 아니고 원하지도 않는데 제가 29만불을 찾아서 혹시 어뉴이티를 가입할 수 있을까요? 생명보험에서 찾아서 어뉴이티에 넣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생명보험으로 옮길 수 있는지, 옮길 때 세금은 내야 하나요? 그리고 지금 어뉴이티에 29만불을 찾아서 저 본인 내년부터 찾아 쓰면 얼마씩이나 나올까요? 문선영씨 저 좀 도와주세요.

미국에서 여러분의 재정상담과 플랜을 돕고 있는 문선영 머니토크의 재정전문가 문선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미국에서 재정상담과 재정플랜을 돕고 있는 문선영의 머니토크의 재정전문가 문선영입니다. 자녀들이 건강하게 훌륭하게 잘 커서 정말 좋네요. 이제 선생님만 건강하게 오래 사시면 되는데 지금 집을 파실 생각은 아니시고 생활비는 더 필요하신데 현재 가지고 계신 생명보험이 있으시다는 상황이에요. 일단 질문하신 세가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생명보험의 돈을 어뉴이티에 넣을 수 있습니다. 네 넣을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은 여러가지 베네핏 때문에 사망할 때 까지 유지하시는 것을 강력 추천드리지만, 만약 사망보상금으로 남겨 주는 것보다 현재 내가 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상황이 바뀌게 되죠. 그런 경우 생명보험에 있는 캐시밸류를 어뉴이티로 옮겨서 나의 은퇴로 이차 받아 찾아 쓰는

Finance & Marketing
WISECALIFORNIA 문선영의 머니토크

5월 가정의 달 5개 도시 세미나

- 5/6 수 6pm, 라팔마
CD vs 어뉴이티 세미나
6 Centerpointe Dr, Suite 700, La Palma
- 5/8 금 6pm, 로스 앤젤레스
전문적으로 새로운 인생-에이전트 모집
3435 Wilshire Blvd., 14F, Los Angeles
- 5/14 목 10am, 세리토스
은퇴! 이것으로 준비 끝
1777 Center Court Dr, Suite 600, Cerritos
- 5/21 목 7pm, 로스 앤젤레스
리빙베네핏! 암 걸러도 롱케어에도 내가 받는 생명보험
3435 Wilshire Blvd., 14F, Los Angeles
- 5/23 토 2pm, 로스 앤젤레스
이제까지 알았던 것과 완전 다른 생명보험 제대로된 활용법
3435 Wilshire Blvd., 14F, Los Angeles
- 5/30 토 9:30am, 샌디에고
샌디에고의 새출발- 에이전트 모집
7825 Engineer Rd Ste 201, San Diego
- 6/6 토 10am, 1pm, 3pm, 5pm 프레즈노
올데이 재정 세미나
2350 W. Shaw Ave, Suite 121, Fresno



텔로유스 닥터 초청 세미나

“퇴행에서 재생으로”

줄기세포 활성화의 혁신 텔로유스

단순한 증상 억제와 통제의 의학을 넘어, 잠들어 있는 당신의 세포를 깨워 스스로 회복하게 만드는 세상에 없던 새로운 재생 의학의 패러다임을 선사합니다. 세포 간 소통의 핵심 기술인 '세포 신호(Cell Signaling)'가 어떻게 우리 몸의 시계를 되돌리는지, 그 혁신적인 재생의 현장에 당신을 정중히 초대합니다.



Dr. Chris Morris

2026. 5. 16(토)

■오전 9:45 : 부에나 파크

(6820 Orangethorpe Ave #G, Buena Park, CA 90620)

■오후 5:00 : Laguna Woods

(24341 El Toro Road, Laguna Woods, CA 92637)



Dr. Tina Johnson

2026. 5. 17(일)

■오후 2:45 : 가든 스위트호텔

(681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5)

예약 마감: 5월 13일(수) 예약 및 문의 : 폴 킴 수석코치 **714-732-8477**

왜 텔로유스 인가?

기존 의학이 문제가 생긴 후 '관리'에 집중할 때, 텔로유스는 본질적 재생에 집중합니다.

세포의 언어 복구: 세포 간 소통을 되살리는 독보적 세포 신호 기술
줄기세포의 기적: 골수 내 줄기세포 활성화 및 생산을 최대 36배 촉진
역노화의 실현: [퇴행]의 굴레를 벗어나 '재생'으로 전환하는 혁신적 솔루션

[검증된 신뢰의 데이터]

- 전 세계 100만 명 이상의 임상 경험 데이터 보유
- 미국, 독일, 노르웨이 등 저명한 제3기관 임상 실험 완료
- 12가지 글로벌 품질 인증 획득
- 12개월 머니백 개런티
- 91% 재구매율

Special Session

Business Opportunity

신기술이 선사하는 압도적 비즈니스 기회

단순한 제품 판매가 아닙니다. '메가 트렌드의 선점'입니다. 세포 신호 기술을 기반으로 건강 산업의 지형을 바꿀 글로벌 비즈니스의 주인공을 찾습니다.

**이런분
정중히 모십니다**

- ☞ 건강 산업의 차세대 혁명을 선점하고 싶은 비즈니스 리더
- ☞ 가치 있는 치유를 전하며 지속 가능한 고수익 모델을 구축하고 싶은 분
- ☞ 글로벌 확장성이 검증된 시스템에서 제2의 커리어를 시작하고 싶은 분



폴 킴
젊음 회복 프로그램 수석코치
텔로 바이오텍 뱀 디렉터
문의 및 예약 : 714-732-8477

Business Presentation

일시 : 5월 30일(토) 오후 2:00 / 예약 마감 5월 27일(수)

장소 : 부에나 파크 사무실

(6820 Orangethorpe Ave #G, Buena Park, CA 90620)

건강을 넘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영어로 진행**

- 한국어 통역 필요시
본인 아이폰 지참